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예산제도 시행 방안 실행연구

2024. 12.

연구진

책임연구원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이호선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외래교수)
	민혜경 (하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홍윤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안효준 (하상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팀장)
	이미정 (하상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팀장)
	정경아 (하상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팀)
	손우석 (하상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팀)
	윤나라 (하상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팀)
	유재황 (하상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팀)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II. 개인예산제 동향 분석	5
1. 비교 분석의 필요성	5
2. 일반적인 개인예산제도 실행 절차 및 주요 구성요소	7
1) 개인예산제도의 실행 절차	7
2) 개인예산제도의 실행을 위한 주요 구성요소	11
3.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기도의 개인예산제도 개요	16
1)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2024년)	16
2)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2024년)	19
3)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2024년)	22
4. 분석 결과	23
1) 자격기준 및 측정 설정 방법	23
2) 용도와 용처의 제한 정도에 따른 급여 유연화 정도	24
3) 지원·옹호와 규제의 정도	25
4. 향후 과제 - 제도적 측면	27
1) 사정 체계 개발	27
2) 용도·용처 확대에 따른 서비스 유연화	27
3) 지원서비스 확대	27
4) 급여 확대	28

III. 모형 개발 29

- 1. 사업의 목적 29
- 2. 수행체계 29
- 3. 사업 진행 절차 30
- 4. 운영 지침 31
 - 1) 신청 및 선정 31
 - 2) 개인예산계획 수립 31
 - 3) 개인예산계획 심의 36
 - 4) 계약 및 정산 37
 - 5) 모니터링 39
 - 6) 이의신청 40

IV. 실행연구 분석 41

- 1. 이용자 면담 결과 41
 - 1) 조사 개요 41
 - 2) 조사 결과 42
- 2. 지원자 면담 결과 51
 - 1) 조사 개요 51
 - 2) 조사 결과 52
- 3. 성과 분석 결과 63
 - 1) 조사 개요 63
 - 2) 사전·사후 조사 결과 63
 - 3) 만족도 조사 결과 68
- 4. 사업 참여 당사자의 이야기(story): 선호-계획-실행-성과 중심으로 71
 - 1) 참여자 1(지적장애, 남성, 30대) 71
 - 2) 참여자 2(지적장애, 남성, 20대) 72
 - 3) 참여자 3(시각장애, 여성, 40대) 73
- 5. 실행의 재구조화 74
 - 1) 서식 수정 및 개선 필요 사항 74
 - 2) 절차상 수정 적용 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 75

V. 결론	77
1.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실행 모형	77
1) 수행 체계	77
2) 진행 절차	78
3) 운영 시 유의할 점	79
2. 지자체 단위 실행 모형	80
1) 수행 체계	80
2) 진행 절차	81
3) 운영 시 유의할 점	82
참고문헌	84
[부록 1] 지원자 면접 조사지	86
[부록 2] 이용자 면접 조사지	87
[부록 3] 관련 서식	88

표 목차

<표 II-1> 개인예산제도 실행 절차	7
<표 II-2> 장애개념 접근법과 측정방법	13
<표 II-3>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비교	14
<표 II-4> 용도·용처 제한에 따른 개인예산제도 모형	14
<표 II-5> 지원과 규제에 따른 개인예산제도 모형	15
<표 II-6>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체계	17
<표 II-7>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체계	20
<표 II-8>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진행 절차	21
<표 II-9> 자격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3개 모형 비교	24
<표 II-10>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지원불가 항목	24
<표 II-11> 용도·용처 제한에 따른 3개 모형 비교	25
<표 II-12> 지원과 규제에 따른 3개 모형 비교	26
<표 III-1> 장애인복지관 개인예산제도 시행 수행체계	29
<표 III-2> 장애인복지관 개인예산제도 진행 절차	30
<표 III-3> 지원영역 및 서비스 예시	35
<표 III-4> 지원의 필요성 점수	35
<표 III-5> 급여승인 기준 및 배점	37
<표 IV-1>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41
<표 IV-2> 이용자 면담자의 주요 질문	41
<표 IV-3> 이용자 면담 주요 결과	42
<표 IV-4> 지원자 면담자의 일반적 특성	51
<표 IV-5> 지원자 면담자의 주요 질문	51
<표 IV-6> 지원자 면담 주요 결과	52
<표 IV-7> 참여자 사전·사후 조사 및 만족도 조사	63
<표 IV-8> 자기결정 수준 전체 통계	63
<표 IV-9> 자기결정 수준 문항별 통계	64

<표 IV-10> 자기효능 수준 전체 통계	65
<표 IV-11> 자기효능 수준 문항별 통계	65
<표 IV-12> 사회참여 수준 전체 통계	66
<표 IV-13> 사회참여 수준 문항별 통계	66
<표 IV-14> 부정적 감정 느끼는 수준 전체 통계	67
<표 IV-15> 삶의 만족 및 행복감 수준 통계	67
<표 IV-16> 삶의 만족 및 행복감 수준 문항별 통계	68
<표 IV-17> 개인예산제 사업에 관한 만족도 수준 항목별 통계	70
<표 IV-18> 사전·사후 질문지 변경 전·후	75
<표 V-1>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예산제도 수행 체계	77
<표 V-2> 장애인복지관 개인예산제도 진행 절차	78
<표 V-3> 지자체 단위 개인예산제도 수행 체계	80
<표 V-4> 지자체 단위 개인예산제도 진행 절차	81

그림 목차

[그림 III-1] 개인예산계획 심의 절차	36
[그림 III-2] 급여승인 기준 및 절차	37
[그림 III-3] 정산 절차	39
[그림 IV-1] 거주 현황 수정안	7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등 정부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을 시행하고, 2024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5년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모의적용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월 지원액 중 10%를 차감하여, 다른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유연하게 사용하는 방식이었고, 2024년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월 지원액 중 20%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즉, 자원할당 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기존 지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서비스 사용 유연화만 실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도 2023년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을 시행하고, 2024년 1차 시범사업을 실행 중이고, 2025년에는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모의적용 사업 및 시범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장애인 당사자를 만나 개인예산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계획대로 사용하는 모형이다. 즉 자원할당을 위한 사정 도구로 객관적이지만 간접적인 지표(손상의 정도, 기능의 제한 정도 등)를 사용하는 대신, 직접 당사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물어서 당사자가 원하는 필요 정도를 직접 측정(장애와 관련되어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직접 찾아내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측정)하고, 승인을 받는 체계이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서울시 시범사업에서 장애인복지관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모의적용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은 미비했다. 하지만 모의적용사업 시 개인예산 작성, 집행 지원, 정산 지원을 담당했던 국민연금공단 전담인력이 2024년 시범사업부터 배치되지 않음에 따라, 전담인력이 담당했던 역할을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던가,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기존 기관에서 개인예산계획 작성을 지원했는데, 11개 지원기관 중 장애인복지관이 7개소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애인복지관이 기본적인 계획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서울시 모의적용사업의 경우에도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들(4곳)에서 개인예산계획 작성을 지원했고, 시범사업에서는 7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참여하여 자기주도계획 작성을 지원하였다.

현재도 장애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시범사업에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향후 정부의 개인예산제 실행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모형 또는 서울시 모형 모두 장애인복지관에서 개인별 개인예산계획 또는 개인별 자기주도계획 작성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개인예산계획 작성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향후 개인예산제 고도화 시, 계획 작성지원도 경쟁 체계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시·군·구별로 3개 이상의 계획수립 지원기관이 지정되고, 장애인 당사자가 이 중 한 곳을

선택하면 그 기관은 개인예산계획 작성을 지원하고 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변경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은 개인예산계획 작성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예산제 시행에 따라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경쟁과 더불어, 외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제공방식이 필요하다. 2023년 장애인복지관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개인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장애인복지관은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과 경쟁할 뿐만 아니라, 외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예산을 활용하여 외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정부의 본격적인 개인예산제 실행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역량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접적이고 질적인 자원할당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예산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맞춰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을 모색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개인예산을 활용하여 외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복지관의 내부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내용

개인예산제의 개념 및 해외 동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개인예산제 개념 및 해외 사례 등 기본적인 문헌 고찰은 제외하였다. 대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개인예산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개인예산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실행하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예산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재 개인예산제 이름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기회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활동 기회를 늘리고자 시행되는 정책이라 개인예산제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예산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에서 개인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실행연구를 위해 장애인복지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개인예산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였다. 자기주도 계획서 작성 및 지원 방법, 개인예산 승인 및 계약 방법, 개인예산 집행 및 정산, 개인예산 성과 분석 방법 등에 관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모형을 참고하여 개별 복지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셋째, 개발된 모형에 맞춰 장애인복지관에서 개인예산 서비스를 실행하면서 모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인들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개발된 모형을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하고 또 이를 실행하는 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또 성과평가 도구 개발 후 개인예산 서비스 성과평가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실행연구를 통해 최종 모형을 개발하였다.

넷째, 개인예산제 실행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입장에서 개선할 사항, 실천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어떤 모형으로 개인예산제를 실행하던 장애인복지관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개인예산제 실행을 하고, 장애인복지관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언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정부의 본격적인 개인예산제 실행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역량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개인예산제도 비교·분석, 장애인복지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개인예산 서비스 모형 개발 및 실행, 개선 방안 도출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와 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 조사는 두 가지가 진행되었다. 첫째,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기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개인예산제 사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시범사업 모형을 기반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개인예산 서비스 실행 절차에 따른 모형을 개발하였다. 자기주도계획서 작성 및 지원 방법, 지원 가능 서비스 목록 및 예산액, 집행 및 정산 방법, 성과 분석 방법 등을 포함하였다.

실행연구를 통해 지원자가 실천을 하면서 모형을 개선해 나갔다. 실천 과정을 통해 모형 수정 및 복지관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용자(참여자)를 모집하고 이용자(참여자), 지원자, 연구자가 함께 실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 지원자와의 간담회(매월 1회), 이용자(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총 2회)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행 과정상의 심층 면접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참고> 실행연구

- 객관성이나 이론 정립에 관한 관심보다 실천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며 반성적 실천의 자기순환과정 강조
-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론이나 가설에 근거하지 않고 생생한 삶의 경험에 근거해야 함
- 참여적 실행연구의 절차
 - 1단계- 정보수집 단계: 지역사회에서 정보수집에의 집중 및 몰입
 - 2단계- 문제 정의 단계: 조사 질문의 개념
 - 3단계- 도구설계 단계: 인터뷰 일정, 집단토론의 대화 등
 - 4단계- 자료수집 단계: 인터뷰, 질문지, 초점집단, 대화 집단 등의 방법 수행
 - 5단계- 결과의 해석단계: 요약내용, 집단토론, 간행물피드백 등을 활용
 - 6단계- 액션 단계: 새로운 기술과 언어, 대화 집단의 사용 단계

II. 개인예산제 동향 분석

현재 개인예산제 이름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기회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활동 기회를 늘리고자 시행되는 정책이라 개인예산제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예산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에서 개인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1. 비교 분석의 필요성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현금(cash)을 제공하는 형태를 통칭하는 것으로(Ungerson, 2004), 이를 통해 이용자는 서비스의 본질을 결정할 수 있고, 또 누가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관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Glasby & Littlechild, 2009). 즉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별적으로 평가한 이용자의 욕구에 기초하여 예산을 할당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 및 제도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이동석, 2015).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초반에는 해외 국가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독일(원소연, 2010; 남용현, 2014), 영국(유동철, 2012; 이동석, 김용득, 2013; 이승기, 이성규, 2014; 정성희, 문영임, 2023), 미국(이동석, 2015a; 김정미, 2020), 호주(송승연, 김효정, 장선미, 2022; 이한나, 2022; 장선미, 2022)의 개인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 또는 함의를 찾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개인예산제도를 시행해 봄에 따라 실천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김동홍, 정종화, 2021;곽설아, 정종화, 2022)가 나타났고, 개인예산제 도입 논쟁에 따라 개인예산제도와 관련된 논쟁을 분석한 연구(허준기 외, 2022; 안형진, 진형식, 2023)가 진행되었다. 이후 개인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구체적인 운영 모형을 찾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모형을 마련하는 연구들(이한나 외, 2020; 김동기, 이한나, 어유경, 2023)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개인예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였고, 이후 마련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서울 마포, 경기 김포, 충남 예산, 세종의 4개 지역에서 모의 적용을 시행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5. 9). 또 2024년도에는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5년에는 8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17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 모델은 자기주도성을 구현하기에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한나 외, 2024).

한편 서울시의 경우, 2017년부터 개인예산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준비해 왔고 2024년 현재 자체 예산으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7년 서울시에서 시행할 개인예산제 모형을 개발했으나(김용득 외, 20017), 정책 방향에 합의를 이끌지 못해 잠시 중단되었었다. 이후 2021년 서울시 자체 시범사업 실행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현재는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개인별 자기주도 계획수립 등 관련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서울시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의 시범사업 내용과 차이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체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즉 대상, 지원, 급여의 범위 등이 상이하고, 개인예산제 시행 이전에 준비되어야 할 서비스 개별 유연화와 자기주도지원 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강북구가 2024년 중앙정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면서도 중앙정부 사업과는 별개로 서울시 자체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기회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명칭 때문에 소득보장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사회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정책에 해당하고, 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예산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재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기도에서 각자 모형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만들어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고, 각 모형들을 비교 분석하여 모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예산제 모형을 비교 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일반적인 개인예산제도 실행 절차 및 주요 구성 요소

1) 개인예산제도의 실행 절차

개인이 자신의 지원을 주도하면서 더 많은 선택과 통제권을 갖도록 지원하는 자기주도지원 방식의 개인예산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김용득 외, 2017). 일반적인 절차는 해외 자료를 참조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지방정부가 시행 주체가 된다.

<표 II-1> 개인예산제도 시행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② 서비스 자격(eligibility) 평가 및 예산(budgets) 산정
③ 지원계획(support plan) 작성
④ 지원계획 합의 (이용자와 지방정부 및 급여 제공)
⑤ 집행(activity)
⑥ 정산
⑦ 성과평가(monitring) 및 서비스 질에 대한 품질관리(quality assurance)

(1) 신청 및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를 접수하게 된다.

(2) 서비스 자격 평가 및 예산(budgets) 산정

우선 개인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자격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도 사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에 따라 사정은 이용자의 집에서 받게 되며, 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 센터나 일반 상담소에서 사정을 받을 수도 있다.

자격 평가를 위해서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는 서비스 자격기준(eligibility)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격기준은 현재 활동지원제도 기준을 준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자격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 지표를 정해 양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사정 담당관과 장애인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질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양적 평가 또는 질적 평가 모두에서, 사정담당관은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지방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담당자일 수도 있다.

서비스 자격 평가가 마무리되면, 지방정부는 개인에게 얼마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양적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측정된 값(score)에 따라 예산 금액이 정해지고, 질적 평가를 한 경우 필요량에 대한 합의에 의해 예산 금액이 정해질 수 있다.

(3) 지원계획(support plan) 작성

지원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원방식을 찾아서 지원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이 때 지원계획은 자기사정에서 확인된 욕구를 반영하여야 하고, 성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성과는 개인의 건강이나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개인이 얻고자 하는 바, 삶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인 성과를 포함한다. 지원계획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당신은 무엇이 변하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 당신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개인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당신의 지원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 당신의 삶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 이런 일이 행해지기 위해 당신이 할 일은 무엇인가?

지원계획 작성은 장애인 본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 서비스 제공자, 사회복지사, 독립적인 조직, IT센터, 지원 브로커, 독립적인 옹호인, 재정 상담가 등의 도움을 받아 지원계획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것이 중개(brokerage)의 개념이다(Carr, 2010; Gardner, 2011). 우리는 일상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중개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또는 정보가 부족하여 중개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이다. 마찬가지로 지원 중개도 일반적인 중개와 같다고 보면 된다. 지원 중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한다. 즉 개인예산제 전 과정에서 중개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 무엇이 이용가능한지 알아내기
- 무엇이 가능한지 찾아내기
- 정보 제공하기
-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 비공식적인 지원을 격려하고 발전시키기
- 지원과 자원을 조정하기
- 예산과 관련하여 개인이 의무와 책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무엇인가를 촉진하기
- 지원계획을 도와주기

이때 사회복지사 등 주변 지원인은 가능한 위협에 대해 경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기사정 과정 및 지원계획 작성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과정을 이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실천은 선택과 위협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요구된다.

서비스 이용자만 참여하는 과정이 자기사정 및 자기주도 지원계획 작성이 아니다. 자기사정 및 자기주도 지원계획 작성의 목표는 서비스 이용자가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기술은 이 과정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를 촉진하고 지원하고

상담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자기사정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욕구를 판단할 때 서비스 이용자와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권한 약화된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와 이용자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인지하고 민감한 방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실천가들은 사정이 가능한 객관적으로 유지되고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자들이 독립적인 지원이나 옹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람 중심 계획은 개별유연화(personalisation)의 목표를 실행하는데 주요한 도구로서 채택되어져 왔다. 지원계획 수립이 사람 중심 계획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 중심 계획의 주요 가치 중 하나인 지배권(ownership)은 지원 계획에 PCP접근법을 채택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이다. 지배권은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지원을 받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권한을 가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기술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과 같은 독립 조직들이 자기사정 과정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다.

(4) 지원계획 합의 (이용자와 지방정부) 및 급여제공

이용자가 지원계획을 작성하면, 지방정부의 담당자는 이 계획이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잘 반영한 것인지, 실제로 실현가능한지, 계획대로 했을 경우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계획을 조정하여 확정한다. 계획이 확정되면 확정된 계획에 맞게 개인예산의 수정된 액수와 지출방법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계획에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수정한다. 개인이 계획한 것이 이뤄질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에도 개인예산을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거나,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이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 교통비, 휴가비, 학습활동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급여사용 범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원계획의 일부분으로 사정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 도박이나 빚, 담배 또는 술, 불법적인 모든 것과 같은 서비스 또는 급여에 대해서는 개인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집행(activity)

개인예산 즉 현금만 반드시 분리된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자기주도적으로 지원계획에 따라 집행을 하면 된다. 개인예산은 개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유연하게 개인에게 맞춰진 개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정의된 서비스나 급여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조직의 도움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만약 개인예산으로 지불하려고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원중

개인(Support Broker)이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면 된다. 이용자가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서 이용자를 대신해서 관리해줄 수도 있다. 개인예산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현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원을 관리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개인예산은 현금지급(direct payments), 관리형 예산제(managed personal budgets), 개인서비스펀드(individual service funds)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 (Carr, 2010). 첫째, 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운용할 수도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운영하는데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적절한 사람(suitable person)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둘째, 관리형 예산제(managed personal budgets)가 있는데, 이때 관리주체는 지방정부일 수도 있고, 공급자를 포함하는 제삼자일 수도 있다. 우선 지방정부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 계좌(account)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된 돌봄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게 된다. 다음으로 공급자를 포함하는 제삼자가 유지 관리하는 계좌의 형태가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공급자와 직접 협상하여 돈을 지불한다. 이와 같은 별도의 관리 계좌를 개인서비스펀드(individual service funds)라고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현금지급제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직접적인 예산 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에 적합한 계약을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위 방식들의 다양한 혼합형도 가능하다.

(6) 정산

지방정부 담당자는 이용자의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용자를 만나서 점검해야 한다. 이용자는 한 해가 끝날 때쯤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즉 개인예산 사용에 대해 정산을 하여야 한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 1년 단위로 정산을 시행하고 있다. 정산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7) 성과평가 및 서비스 질에 대한 품질관리

검토(review) 단계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원계획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택, 융통성, 자기결정의 원칙들이 검토 단계에서도 완전히 녹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이용자의 강점과 경험에 초점을 두면서, 개인들이 지원 계획의 일부분으로 나온 결과물을 검토하고 고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성찰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시장화 전략이 지나치게 경쟁을 강조하고, 취약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한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비스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개인예산제도의 실행을 위한 주요 구성요소

개인예산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절차별로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의 경우 신청의 권한을 누구에게까지 줄 것인지, 직권 신청을 인정할 것인지, 신청을 어디에 할 것인지 등 결정할 사항이 많다. 절차별로 취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쟁점은 다른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비슷한 모습을 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인예산제도 고유의 특성은 반영될 필요가 있다. 즉 자기주도성 또는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절차가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격기준을 정할 경우 전문가들이 정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높이고 장애인이 직접 언급하는 욕구에 기반하여 급여에 관한 자격기준을 결정하는 방식도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예산제도에 자기주도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정 절차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높여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원계획 작성 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높임과 더불어 급여 사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지원계획 작성 및 집행 시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성이 필요한데, 주도 역량이 부족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지원과 옹호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비스 자격기준 수립과 측정 영역, 급여 사용의 유연성 영역, 지원과 옹호의 영역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하나의 실행방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개인예산제도는 정산이라는 특별한 장치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00% 정산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정산의 엄격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정산의 엄격성 정도도 개인예산제도의 모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 자격기준 설정 및 측정

장애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지침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과 기준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측정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개념적 모델은 존재하고 있다(Palmer and Harley, 2011). 다양한 혼합모델이 존재하지만, 양극단은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손상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경험을 설명하는 역사적 경향이 있어왔다. 이와 같은 존재론은 의료적 모델로 알려졌다. 장애는 질병, 부상, 또는 건강상태로부터 발생한 신체적 손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Barnes and Mercer, 2003). 손상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재활과 시설 돌봄을 포함한 의료적 개입과 더불어 특수교육, 직업훈련, 사회복지와 같은 사회부조 프로그램 개입이 우선한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별적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체로 바라본다. 이에 따라 사회변화가 우선 개입방법으로 여겨진다(Barnes et al., 2002). 손상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는 않고, 개인이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조정 장치들, 예를 들어 태도의 변화, 물리적 접근성의

변화와 같은 장치들에 의해 장애가 결정되고 개선되기도 할 수 있다. 사회적 모델의 주창자인 올리버에 따르면, 장애화는 신체와 아무 관련이 없고, 손상은 사실 물리적인 신체에 대한 묘사 그 이상은 아니다(Hughes and Paterson, 1997). 손상에 대한 현대의 대응에 의해 장애인 은 사회에의 접근이 거부당하거나 배제됨에 따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other)’가 되었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므로서 장애에서 의학적 요인과 개별적 요인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의 권한강화와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Hughes and Paterson, 1997). 사회적 모델은 당사자의 장애운동에 중심적인 교리로써 여겨져 왔다(Shakespeare and Watson, 1997). 사회적 모델은 국제적 선언 및 협약, 개별 국가의 입법, 지역중심 재활 및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세계적인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보편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Gabel and Peters, 2004).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손상에 접근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회적 모델이 장애인의 생생한 경험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비판은 의미를 갖는다. 일부 장애인들은 사회적 모델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위치 지을 수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Pinder, 1997). 손상에 대한 무관심에 따라 장애인의 삶에 대한 연구들이 제한적이게 되었다. 또한 장애 특이적 정책의 개발도 제한되었다. 장애인의 삶의 기준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하게 되었고, 특히 개발국가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적인 빈곤 감소 전략에서도 장애에 주의집중하지 않게 되었다(Palmer, 2011). 따라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Hughes and Paterson, 1997; Pinder, 1997; Gabel and Peters, 2004).

다른 이론가들은 사회적 모델이 손상을 무시하여 단일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활동을 제한하는 손상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같은 제한이 장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Thomas, 2002; 43).’ ; ‘사회적 모델 주창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불평등을 지적하는 것이다. 불평등을 손상 자체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평등을 억압과 차별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Reindal, 2009; 157).’ 그러나 개인과 사회 사이를 연결하는 관련요인이 누락된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Thomas, 2004). 결과적으로 사회모델의 수정판, 즉 사회-관계 모델이 개발되었다.

장애의 사회-관계 모델은 손상의 개별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 모두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는 사회적 상황을 조건으로 한다고 본다(Thomas, 2004; Reindal, 2008). 장애는 손상의 영향에 부가되어 사회적 태도의 영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장애인으로 라벨 붙여진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을 거의 못하거나 아예 못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바로 사회 구조이다’ (Pfeiffer, 2000). 전통적인 사회적 모델 관점을 유지하면서,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사회의 장벽을 줄이는데 방점을 둔다. 이런 영향에 의해 UN의 ICF가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장애 개념별 측정기준은 Bernell(2003)의 장애개념 틀이 유용하다. Bernell(2003)의 장애개념 틀을 보면, 의학적 질환의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의학적 접근법(medical approach),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성을 기준으로 보는 기능제한 접근법(functional limitations approach), 개인이 처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사회정치적 접근

법(sociopolitical approach)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조한진, 2011에서 재인용).

의료적 접근법, 기능적 제한 접근법, 사회정치적 접근법에 따른 장애개념과 측정기준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측정에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구조와 능력과 관련된 의료평가, 사회적 활동과 참여에의 배제정도를 평가하는 사회적 기능평가, 개인을 둘러싼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평가하는 사회평가 등의 요소들이 사용된다.

<표 Ⅱ-2> 장애개념 접근법과 측정방법

장애개념 접근법	장애개념	장애측정 방법
의학적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이나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신체구조 또는 기능의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별 손상의 정도 측정 신체적 구조 및 기능 평가(의료평가)
기능적 제한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적 또는 사회적 활동 및 참여 기능의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활동 및 참여에의 기능 제한 정도 측정 노동 무능력 정도, 일상생활활동 제한 정도 평가
사회정치적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상으로 인해 차별·배제·역압당하는 것 손상에 부적절하게 대응하여 나타난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에의 위험 정도 측정 개인의 손상정도와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립(비의존) 정도 파악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제도는 의학적 접근법을 따르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신체적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결정되고, 등급이 결정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에 따라 등급은 중증과 경증으로 변경되었지만, 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평가도구는 일상생활 정도와 수단적 일상생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기능적 제한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의학적 접근법과 기능적 제한 접근법의 경우 장애인은 측정 대상일 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전문가 중심의 사정 체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예산제도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다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상황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정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가 보다 많아 져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성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결국 당사자 중심의 사정 체계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정 담당자가 장애인 당사자를 만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즉 장애인 당사자의 환경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서비스 필요성), 서비스가 제공되면 어떤 성과가 기대되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사정도구는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 사회적 기능 제약, 사회적 불리 현상으로 측정하도록 개발될 수 있다. 또 각각의 사정도구는 지표와 측정방법을 포함하게 되는데,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 사회적 기능 제약을 활용한 측정도구는 전문가 중심의 양적 평가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불리 현상을 활용한 측정도구는 전문가가 사정을 담당하되 장애인 당

사자의 말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음에 따라 당사자 중심의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의 사정 체계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에 대해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당사자 중심의 사정 체계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표 II-3>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비교

	전문가 중심 사정 체계	당사자 중심 사정 체계
측정도구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 사회적 기능 제약	사회적 불리 현상 (사회정치적 환경 평가)
측정방법	양적 평가	질적 평가

(2) 급여 사용의 유연성

지급되는 개인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용도의 제한여부, 용처의 제한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개인예산제도가 가능하다. 용도는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예, 이동, 교육, 소득활동 등)을 의미하고, 용처는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사용처(예, 공공기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일반 시장, 개인 등)를 의미한다.

첫째, 용도와 용처가 모두 제한되어 있는 모형이다. 이모형은 바우처제도와 동일하다. 즉 용도와 용처가 정해진 바우처 계약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용도는 제한하지 않지만 용처는 제한하는 모형으로 기관기정 개인예산제도로 부를 수 있다.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 또는 범위는 제한하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 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도매가 필요한 경우 정부와 계약한 특정 업체에서만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용도는 제한하지만 용처는 제한하지 않는 모형으로 소극적 개인예산제도로 부를 수 있다. 용도를 이동, 건강 정도로 한정하되, 이 용도 내에서 용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용도와 용처의 제한이 없는 모형으로 적극적 개인예산제도로 부를 수 있다. 불법적이거나 사행적인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정도는 제한하되, 특정 구매 영역이나 구매처를 제한하지 않고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다.

<표 II-4> 용도 용처 제한에 따른 개인예산제도 모형

구분	용도가 제한됨	용도가 제한되지 않음
용처가 제한됨	용도와 용처가 제한됨 (바우처 제도와 동일)	용도는 제한되지 않으나 용처가 제한됨 (기관지정 개인예산제도)
용처가 제한되지 않음	용도가 제한되나 용처는 제한되지 않음 (소극적 개인예산제도)	용도와 용처의 제한이 없음 (적극적 개인예산제도)

(3) 지원과 정산의 수준

개인예산을 잘 사용하도록 돕는 지원과 옹호서비스의 수준과 지급한 돈의 사용에 대한 증빙 요구 수준, 즉 정산의 엄격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개인예산제도가 가능하다.

첫째, 지원 수준이 낮으면서 정산이 엄격하지 않는 등 규제 수준이 낮은 모형이다. 개인예산을 장애인에게 지급해 주고 계획 및 집행 등의 상황에서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정산도 요구하지 않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소득보장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즉 개인예산을 주고 개인이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지만 지불정산을 요구하지 않는 모형으로 자율형 개인예산제도로 명명할 수 있다. 이 모형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지원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셋째, 개인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은 낮으면서 정산은 엄격하게 요구하는 모형으로 규제형 개인예산제도로 명명할 수 있다. 이 모형의 경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주도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이 모형은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할 수 없다.

넷째, 개인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지불정산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모형으로 관리형 개인예산제도로 명명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장애인 당사자 측면에서는 지원을 받아서라도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세금을 내는 국민입장에서도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정산의 엄격성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는 불편할 수 있으나, 세금에 대한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원과 정산의 수준 측면에서 보면, 4가지 유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개인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지불정산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관리형 개인예산제도가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표 II-5> 지원과 규제에 따른 개인예산제도 모형

구분	서비스 계획수립과 집행 등에 대한 낮은 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과 집행 등에 대한 높은 지원
낮은 규제 (지불정산 요구 안함)	낮은 지원과 낮은 규제 (소득보장 수당과 동일)	높은 지원과 낮은 규제 (자율형 개인예산제도)
높은 규제 (엄격한 정산)	낮은 지원과 높은 규제 (규제형 개인예산제도)	높은 지원과 높은 규제 (관리형 개인예산제도)

3.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기도의 개인예산제도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예산제도 형태를 실행하는 모형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서울시의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경기도의 기회소득이 있다.

1)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2024년)

(1) 기간

- 2024. 7. ~ 2025. 12.(18개월)
- (1차 시범사업) 2024. 7. ~ 2024. 12.
- (2차 시범사업) 2025. 1. ~ 2025. 12.

(2) 참여 인원 및 지자체

- 1차는 총 8개 지역에서 운영하며, 2차는 9개 지역을 추가 모집하여 총 17개 지역 운영
- 1차 시범사업 참여 지역은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진행
- (규모) 총 210명(1차 시범사업 기준)
- 지역별 약 26명(210명/8개 지역)이나, 신청 현황에 따라 유동적 운영

(3) 개인예산 및 사용 가능 영역

- 당사자가 자신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월 지원액 중 20% 이내에서 차감하여 개인예산액으로 설정
- 이 예산 내에서 다른 서비스 구매
- 개인예산 이용 범위는 참여자의 장애와 관련되어 있고, 개인예산 이용계획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영역 내 재화와 서비스로 설정되어 있음
- 개인예산 이용 범위는 주거, 일상생활, 신체 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 정서,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과 같은 6개 영역에 한정. 보건복지부의 복지자원 표준분류 9개 지원 영역 중 개인예산제의 성격(유료 구매)에 부합하지 않거나(일자리), 모의적용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영역(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을 제외한 6개 지원 영역이 선정되었음
- 또 이 영역 내에서도 장애와 관련 없는 의식주 생활을 위한 생필품, 주류, 담배, 도박, 주거비(월세, 공과금 등), 부채 상환, 금융상품 등은 배제되었음

(4)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 전달체계 활용
-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인턴 고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범사업 연구 총괄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및 전산시스템 개발
- 복지전문기관과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 이용자 지원

<표 II-6>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체계

기관	역할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총괄	
시·군·구*	담당자 (공무원)	시범사업 수행 관련 제반 행정사항 처리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참여자 이용계획 합의(변경/직권합의 포함) 지원위원회 결과 정리 및 관련 문서 발송 개인예산제 급여 정산·관리 복지전문기관 지정
	전담인력 (청년인턴)	선정자 인적사항 파악 개인별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및 변경 지원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 참여자 모니터링(이용, 정산 등) 참여자 활동지원 사용 급여 정산·관리 지원 시범사업 수행 관련 제반 행정사항 처리 지원
읍·면·동	시범사업 참여자 발굴·신청접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연구 - 시범사업 기준 설계 -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운영(사업 전반) -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성과 평가 - 개인예산제 본사업 기초모델 도출	
한국장애인개발원	시범사업 사무국 운영 - 민관협의체 및 시범사업 추진단 운영 - 시범사업 담당자 및 유관기관, 지원위원회 위원 교육 - 시범사업 참여자 발굴 홍보, 신청서 취합 및 선정결과 알림 -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운영 지원 및 실적 점검 - 시범사업 참여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	

기관	역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운영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전용계좌 개설 및 예탁금 관리 - 개인예산 사용 급여비용의 지급 - 시·군·구별 예탁금 정산내역 통보
복지전문기관	개인별 개인예산 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 및 담당자 소견 공유 참여자 모니터링 및 정산 지원
활동지원제공기관	참여자 모집 홍보 지원 개인예산 미사용 급여 활동지원 이용 시 정산지원

(5) 2023년 모의적용 사업 대비 변경 사항

- 모델 단일화, 자율사용급여 10%→20% 상향 조정
-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지원기관 변경 (국민연금공단→장애인복지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시도사회서비스원 등) 및 시군구 전담인력(청년인턴, 지역별 2인) 배치
- 개인예산 급여범위 확대

(6) 지원기관 및 인력

- 2023년 모의적용 사업에서는 지원 인력 존재
-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및 정산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담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담 인력은 모의적용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한 인력으로, 이용자의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지원, 지자체에 설치된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지원위원회 회의 지원, 이용자의 급여 이용 지원, 이용자의 정산 지원, 모니터링 등의 업무 담당
- 즉 시범사업 지역별로 한 명의 전담 인력이 사업 참여 이용자들 지원
- 하지만 2024년 시범사업에서는 전담 인력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지자체에 청년인턴 2인을 채용하여 모니터링 및 정산 과정 담당
- 개인별 개인예산 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은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지원기관에서 담당함

2)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2024년)

(1) 사업목적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델 검증
-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수요자 중심 사회서비스 강화

(2) 사업대상 및 기간

- 서울시 거주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시·청각 장애인(100명)
- 사업기간 : 2024.7.22.(월) ~ 2025.3.22.(토) (8개월)

(3) 사업내용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사업 추진(2026년 예정)에 앞서 대상자 선정, 실 급여 지급 등 전체 사업운영을 통해 사업모델 정교화
-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선정(100명)
- 참여자·지원기관 대상 개인예산제 교육, 간담회, 지원계획서 작성방법 교육 등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승인, 지급, 정산 등 운영전반 관리 등

(4) 지원규모

- 개인별 지원계획서 금액 중 개인예산 운영위원회 승인금액
- 1인 최대 240만 원 한도(월 최대 40만 원, 6개월간)
- 개인예산 운영위원회 승인액 지원

(5) 추진체계

- 서울시에서 총괄
- 서울시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자기주도지원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운영을 맡아 수행기관의 역할 수행
-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 7개소에서 지원기관 역할
- 지원기관에서 참여자 발굴 및 접수, 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표 II-7>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체계

기관	역할
서울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총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	개별 자기주도지원계획서 검토 및 급여 승인 심의
심의소위원회	자기주도지원계획서 검토 및 1차 예산 심의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및 심의 검토·자문 제공
수행기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정 - 시범사업 참여자 교육 - 자기주도지원계획서 승인 및 계약 -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 개인예산 용처 지정 및 계약 - 시범사업 참여자 개인예산 집행 및 정산보고 승인 - 시범사업 수행 관련 제반 행정사항 처리 -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성과 평가
지원기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 - 시범사업 참여자 발굴 및 신청 접수 - 시범사업 참여자 자기주도지원계획 상담 - 시범사업 참여자 자기주도지원계획 작성 지원 - 시범사업 참여자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지원 - 지역별 자원(서비스제공기관) 목록 작성 - 시범사업 참여자 개인예산 이용 모니터링 및 오남용 점검 - 시범사업 참여자 정산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 - 수행기관과 계약을 맺고, 참여자의 선택을 받아 서비스 제공

(6) 진행 절차

- 신청 및 접수, 지원 욕구 사정, 자기주도 지원계획서 작성, 개인예산 승인 및 계약, 개인 예산 지급, 집행, 정산의 순으로 진행

<표 II-8>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진행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이용자 ↓ 수행기관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전화, 우편 등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인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지원 욕구 사정	이용자 지원기관 (복지관 등)	지원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자 사례관리 경험 여부에 따라 선정
		욕구 상담	이용자 욕구 및 욕구별 순위 분석
자기주도 지원계획서 작성	이용자 지원기관 (복지관 등)	작성방법	개인별 작성(지원기관 지원)
		예산 산정 방식	시장가, 견적가 또는 상한가 적용
		계획서 내용	- 인적사항 - 내가 원하는 삶의 계획(상황, 필요 서비스 등) - 개인별 서비스 및 예산 계획 등
개인예산 승인 및 계약	지원기관 (복지관 등) ↓↑ 위원회	제출기관	지원기관
		승인기관	개인예산 심의위원회
개인예산 지급	서울시 ↓ 이용자	지급 형태	현금 지급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이용금액 대리 지급)
		급여 내용	사회서비스 및 지역 기반 서비스 영역
		용도·용처	지역 내 인증기관 등
		제한	도박, 술, 담배 등 윤리에 반하는 품목 사회활동과 미연계된 의식주 품목
집행	이용자 (지원기관)	지원건별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지원기관에서 이용자 개별 집행사항 모니터링 및 문의 응대)	
정산	지원기관 (복지관 등) ↓↑ 이용자	정산 지원기관	지원기관
		정산 확정기관	수행기관

3)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2024년)

(1) 신청 대상자

-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③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
-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2) 지원 내용 및 방법

- 지원 내용 :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 활동 참여 인증 시 월 5만 원 지원. 하반기 월 10만원으로 상향

- ① 운동 - 소풍, 몸 체조, 숲 체험, 농촌·농장 체험, 체중 관리, 식습관 조절
- ② 문화·여가 - 전시회, 공연·영화 및 스포츠 관람, 여행, 사진찍기
- ③ 교육·봉사 - 반려 식물, 북 아트, 악기 배우기, 봉사 등

- 단, 지급된 기회소득은 유흥비, 사행성 물품 구입, 사적이전, 기부 등의 사용이 제한됨

- 지급 방법: 현금 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예: 3월에 신청 시, 3~12월 총 10개월 간 기회소득 지급)

(3) 정산

- 없음

4. 분석 결과

자격기준 및 측정 설정 방법, 용도와 용처의 제한 정도, 지원 수준과 규제의 정도를 조합하면 매우 다양한 개인예산제도 모형의 설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격기준 및 측정 설정 방법, 용도와 용처의 제한 정도, 지원 수준과 규제의 정도 기준을 적용하여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경기도 기회소득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자격기준 및 측정 설정 방법

(1)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세 이상 65세미만의 자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이다. 서비스 지원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종합점수 42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해 가능 상태, 사회 활동,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기능 제한은 ADL, IADL, 인지행동특성을 측정한다. 사회 활동은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측정하고, 가구 환경은 가구 특성을 측정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나뉘며, 지원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은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정 도구의 변화는 없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측정기준은 장애인 등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 추가적으로 종합조사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 제약을 측정하는 것이다.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이나 사회적 기능 제약 모두 측정 지표는 다르지만 전문가 중심으로 측정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은 전문가 중심 사정 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원과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개인예산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이 계획서를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원안 계약, 일부 예산 수정 후 계약, 반려 등을 결정한다. 이처럼 서울시 시범사업 모형은 개인예산을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작성하고 이후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당사자 중심의 질적 평가(사회적 불리 현상)이다. 결국 기존 장애인복지제도에서 활용되던 전문가 중심 사정 체계에서 당사자 중심 사정 체계로의 변환을 모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의 경우 등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기준은 등록제도만 적용된다. 결국 등록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인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문가 중심 사정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고, 의료적 개념에 고착되어 있다.

<표 II-9> 자격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3개 모형 비교

	전문가 중심 사정 체계	당사자 중심 사정 체계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 사회적 기능 제약	사회적 불리 현상 (사회정치적 환경 평가)
모형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사회적 기능 제약) 경기도 기회소득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	서울시 시범사업 (사회적 불리)

2) 용도와 용처의 제한 정도에 따른 급여 유연화 정도

(1)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의 2024년 시범사업에서는 지원불가 항목 외의 영역은 참여자의 욕구와 목표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예산 지원불가 항목은 불법적인 서비스, 소득보장용 지출, 다른 보장서비스에서 보장하는 서비스 등으로 제한되고, 이 외 용도와 용처는 제한이 없다. 결국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은 용도와 용처의 제한이 없는 적극적 개인예산제도 모형이다.

<표 II-10>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지원불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적인 서비스·재화·활동(예. 도박, 성매매, 「의료법」 상 안마사가 제공하지 않는 안마서비스) · 현행법 상 시각장애인에게만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이 주어짐(「의료법」제82조(안마사)) - 통상적인 가계 유지 비용(예. 일반적인 의식주* 비용, 공과금, 세금) · 단,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한 특수제작의류, 유동식, 주거환경개선 등 비용은 인정 - 가족으로부터 제공 받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급(가족돌봄비) - 소득보장 형태의 지출(예. 저축, 주식 투자, 채권 매입 등 금융상품, 상품권 구입, 부채상환 등) - 주류·담배·복권 구입 - 의료비(필요가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는 허용) - 법률 또는 자체 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이 제한된 비용(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긴급돌봄, 활동지원 제외) - 기타 참여자의 장애와 관련 없는 지출

(2)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은 예산 사용 가능 영역을 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택개조로 한정하고 있다. 또 주택개조 영역의 경우 수행기관과 계약을 한 사업체만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은 용도와 용처가 모두 제한된 모형으로 바우처와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3)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지급받은 기회소득은 운동, 문화·여가, 교육·봉사 영역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급된 기회소득은 유흥비, 사행성 물품 구입, 사적이전, 기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즉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은 용도는 제한되고 용처는 제한이 없는 소극적 개인예산제도 모형이다.

<표 II-11> 용도 용처 제한에 따른 3개 모형 비교

구분	용도가 제한됨	용도가 제한되지 않음
용처가 제한됨	서울시 시범사업	
용처가 제한되지 않음	경기도 기회소득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3) 지원·옹호와 규제의 정도

(1)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에서 개인예산 지원계획은 장애인복지관 등 지원기관이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작성한다. 이후 모니터링과 정산은 시·군·구의 청년인턴이 담당하고 있는데, 지원보다는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계획에 맞춰 사용한 금액은 100% 영수증을 처리하는 등 정산하여야 한다. 결국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은 지원의 수준은 낮으면서 규제의 수준은 높은 규제형 개인예산제도 모형이다.

(2)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에서 개인예산 지원계획 수립 시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장애인 당사자의 말을 듣고 함께 작성한다. 또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해서도 담당 직원이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또 지원계획에 따라 100% 정산을 하여야 하고, 집행의 수정이 필요한 경

우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은 지원의 수준이 높고, 규제의 수준도 높은 관리형 개인예산제도 모형이다.

(3)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 모형에는 계획 수립이 없고 개인이 알아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지원서비스가 없다. 또 정산 의무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은 지원과 규제가 모두 낮은 수준으로 소득보장에 가까운 모형이다.

<표 Ⅱ-12> 지원과 규제에 따른 3개 모형 비교

구분	서비스 계획수립과 집행 등에 대한 낮은 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과 집행 등에 대한 높은 지원
낮은 규제 (지불정산 요구 안함)	경기도 기회소득	
높은 규제 (엄격한 정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서울시 시범사업

5. 향후 과제 - 제도적 측면

1) 사정 체계 개발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월 지원액 중 20%를 차감하여, 다른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유연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자원할당 체계에 대한 개선은 없이 기존 지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서비스 사용 유연화만 실행하는 것이다. 또 경기도 모형의 경우 현재 등록장애인 사정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모형은 전문가 중심 사정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장애인 당사자를 만나 개인예산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계획대로 사용하는 모형이다. 즉, 자원할당을 위한 사정 도구로 객관적이지만 간접적인 지표(손상의 정도, 기능의 제한 정도 등)를 사용하는 대신, 직접 당사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물어서 당사자가 원하는 필요 정도를 직접 측정(장애와 관련되어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직접 찾아내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측정)하고, 승인을 받는 체계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처럼 활동지원제도와 연계하면서 기존 전문가 중심의 사정 체계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서울시 시범사업처럼 새로운 사정 체계,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논의를 통한 질적 평가에 의한 사정 체계를 개발할 것인지 선택이 필요하다. 기존의 활동지원제도와 같은 사정 체계가 편하고 익숙하기는 하지만 이 체계는 전문가 중심의 사정 체계로, 장애인 중심의 제도인 개인예산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정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용도·용처 확대에 따른 서비스 유연화

개인예산제도는 기존 사회서비스로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고,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일반 시장을 포함하는 다양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개인예산제도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용도와 용처를 가능한 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원서비스 확대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자기주도성이 훼손될 수 있다. 신체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예산 작성, 예산 집행, 정산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지원시스템이 없다면 당사자가 주도할 수 없고 다른 전문가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예산제도를 목적에 맞춰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산은 100%를 모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급여 확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중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는 모형과 같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활동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할당했던 자원을 다른 서비스(개인예산제)로 전환함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족 상태를 초해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활동지원서비스의 축소를 감내하면서도 급여 사용의 유연성을 희망하는 사람만 신청을 하겠지만, 기존 할당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양이 부족한 사람은 유연한 서비스 활용이 필요해도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예산제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중 20% 내외의 전환과 더불어 10~20% 정도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추가 지원의 양은 일괄적인 비율보다는 개인별지원계획 작성 및 심의를 통해(서울시 모형) 개인에게 맞출 필요가 있다. 물론 상한선을 정할 필요는 있으며 개인 활동지원서비스의 20% 정도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

Ⅲ. 모형 개발

1. 사업의 목적

- 향후 정부의 개인예산제 실행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준비
 - 자원할당 체계 개선과 서비스 유연화 구축
 - 장애인복지관의 개인별 개인예산계획 작성 지원 역량 강화
 -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 대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
 - 개인예산을 활용하여 외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강화

2. 수행체계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개인예산제도 수행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Ⅲ-1> 장애인복지관 개인예산제도 시행 수행체계

기관		역할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의 사용처 및 사용량을 자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 및 집행, 선택과 통제권을 갖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팀 사회서비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개인예산제 사업총괄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 참여자 모집(발굴), 신청접수, 선정 • 사업 참여자 개인예산계획 작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 개인예산계획 작성 및 수립 지원 • 개인예산계획 승인 및 계약 • 지역별 자원(서비스 제공기관, 용처) 목록 작성 • 개인예산 용처 지정 및 계약 • 사업 참여자 개인예산 이용 지원, 모니터링 및 오남용 점검 • 사업 참여자 정산 지원 및 정산보고 승인 • 사업 수행 관련 제반 행정사항 처리 • 연구팀 운영(사업 모니터링, 결과분석, 성과평가)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예산계획서 검토 및 급여승인 심의 ✓ 연구팀원으로 구성
연구 수행기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자에게 개인예산 지급 • 사업분석 및 성과평가
서비스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 ✓ 수행기관과 계약을 맺고, 참여자의 선택을 받아 서비스 제공

3. 사업 진행절차

사업 진행절차는 표와 같다,

<표 Ⅲ-2> 장애인복지관 개인예산제도 진행 절차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이용자 ↓ 수행기관 (복지관)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전화, 우편 등
		신청자격	관내 등록 장애인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지원 욕구 사정	참여자 ↓ 수행기관 (복지관)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팀)
		욕구 상담	이용자 욕구 및 욕구별 순위 분석
개인예산 계획서 작성	이용자 ↓ 수행기관 (복지관)	작성방법	개인별 작성(수행기관 지원)
		예산 산정 방식	시장가, 견적가 또는 상한가 적용
		계획서 내용	- 인적사항 - 내가 원하는 삶의 계획(상황, 필요 서비스 등) - 개인별 서비스 및 예산 계획 등
개인예산 승인 및 계약	수행기관 (복지관) ↓↑ 심의위원회	제출기관	수행기관
		승인기관	개인예산 심의위원회 (연구진으로 구성)
개인예산 지급	연구 수행기관 (대구대) ↓ 이용자	지급 형태	현금 지급 (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이용금액 지급)
		급여 내용	사회서비스 및 지역 기반 서비스 영역
		용도·용처	5개 영역의 용도에 사용 용처 제한 없음
		제한	- 도박, 술, 담배 등 윤리에 반하는 품목 - 사회활동과 미연계된 의식주 품목
집행	이용자 (수행기관)	지원건별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수행기관에서 이용자 개별 집행사항 모니터링 및 문의 응대)	
정산	수행기관 (복지관) ↓↑ 이용자	정산 지원	수행기관
		정산 확정	수행기관

4. 운영 지침

1) 신청 및 선정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관 관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장애 유형, 활동지원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검토 필요)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경우 위임을 받아 신청인의 가족 또는 친척의 대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참여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에 제출
 - 대면, 전자우편(e메일), 팩스, 우편 제출 가능
 -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에 지원 요청

□ 참여자 선정절차

- 수행기관은 제출된 신청서와 신청자 리스트를 모아서 참여자 선정위원회(연구팀)에 제출
- 참여자 선정위원회는 장애 유형 등 고려하되, 무작위로 참여자 선정

2) 개인예산계획 수립¹⁾

□ 목적

- 자기주도사정(self-directed assessment)방법을 사용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삶과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를 파악하여 개인예산계획 수립함

□ 수립 주체

- (참여자) 급여의 사용처 및 사용량을 자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 및 집행, 선택과 통제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 (수행기관) 자원할당의 주체, 전체 예산 승인,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평가,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정, 개인예산 관련 정보제공 및 참여자 교육(의무와 책임), 개인예산 계획서 작성 지원, 승인 및 계약, 참여자 옹호와 지원 서비스 제공, 개별이용자 모니터링, 예산의 집행 지원(정산 영수증, 오남용 점검 등), 결과 및 정산보고 승인

□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계획서 작성 일정

1) 서울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한국장애인재단, 2024) 참조

- 참여자와 첫 만남 장소는 당사자가 편안한 장소(주택, 복지관, 근처 카페 등)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첫 만남에서부터 적어도 3회 이상의 지속적인 만남을 계획

○ 참여자와 사전 상담 예약할 때 안내 사항

- 신청서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와 기타 내용을 미리 계획서에 작성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질문하지 않도록 함
- 상담 시간을 약속할 때 상담 총 소요 시간을 합의하고 알림

○ 지원자의 역할(의무와 책임)

- 개인예산제도 및 개인예산계획 관련 정보제공
- 개인예산계획서 작성 및 예산 신청 지원
- 참여자의 책무성과 역할에 대한 교육 및 옹호
- 예산 집행 및 정산 지원

○ 참여자와 계획수립 시 주의사항

- 참여자와 처음 만날 때 담당자는 명찰 착용, 명함 지참 등 기본예절 숙지
- 참여자 자택으로 방문할 때는 안전 수칙(문 등지고 앉기 등)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등의 당사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 대응 지식을 사전에 숙지
- 상담을 진행할 때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주 상담자는 당사자와 상담에 집중하고 보조상담자는 기록하여 지원하는 것을 권장함
- 추후 정확한 상담기록을 위해 녹음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 목적 외의 사용을 금함
- 첫 만남은 참여자의 전체적인 삶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본연의 원하는 바를 찾는 노력이 중요
- 표면적 욕구뿐 아니라 표현되지 않은 중요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존엄성과 존경심을 가지고 응대
- 참여자 개인의 강점과 재능을 기반으로 발전시킴
- 참여자가 속한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대인관계 형성하는 것을 지원
- 개개인 의견을 듣고 그들이 선호하는 것에 맞춰 행동
- 참여자가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방식에 귀 기울임
- 상담을 종료하며 참여자에게 상담 이후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연락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고 마무리

□ 계획서 작성 요령

○ <파트 1> 기본정보

- 개인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참여자의 세부 정보로 신청자, 조력인, 지원자가 작성할 수 있음

(1) 인적 사항

- 참여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비상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록
- 장애 유형(정도), 중복장애가 있으면 추가 기록하고 보장구 사용 시 기록, 중도 장애일 경우 해당하는 발생 시기에 체크
- 소득보장현황, 취업, 학력, 거주 현황, 결혼상태 등 해당 사항을 선택함
- 동반한 조력인이 있으면 간단한 기초정보를 기록

(2) 일상생활 수행능력

-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지원의 강도를 체크

(3) 가족관계

- 참여자의 가족 정보 입력, 현재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기본정보를 작성
- 기본정보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므로 작성 가능한 정보만 입력

(4) 나를 지원하는 사람

- 참여자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현재 지원받고 있는 지역사회를 파악
- 참여자가 좋아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 정서적으로 조금 더 친밀한 사람
- 가족 및 친구, 이웃과 지역사회, 직장과 학교, 참여자를 돕고 돌보는 유급 또는 무급의 사람들
- 참여자를 지원하는 사람 외에 참여자가 지원하는 사람도 포함(참여자가 돌보는 자녀, 부모 등)
- 참여자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데 도움

○ <파트 2> 나에 대한 설명

(1) 나의 상황

- 재능, 강점, 업적, 기술, 열정, 지식, 기여도
 - 개인이 가진 자산으로 재능, 강점, 업적, 기술, 열정, 지식, 기여도
 - 코디네이터와 참여자가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강점을 최대한 찾기
 - 참여자가 가진 능력과 재능을 존중
 - 기회를 제공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념을 갖기
- 장애로 인해 사회적 제한, 전반적인 삶에서의 어려움
 - 참여자의 강점과 재능이 현재의 장애, 환경적 상황으로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의 제한점을 기술
 - 장애로 인한 생활에서의 불편함과 어려움 기술

- 장애로 인한 신체의 기능과 구조의 손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참여의 제한에 초점을 두고 질문하고 기술
- 참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호소하는 어려움이 ‘장애’에 기인한 건지, ‘노화’로 나타난 것인지 중간에 환류 과정이 필요함. 해당 사업 예산은 장애와 관련된 것에 사용됨을 설명함.
- 정서적 측면의 어려움(①외로움, ②소외감, ③무가치, ④목적 없음, ⑤다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도 꼭 확인토록 함.

(2) 내가 바라는 변화와 지원

- 전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 : 희망, 꿈, 바라는바, 관심사, 선호도
- 전반적으로 본인이 “좋은 삶(good life)”을 살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important to) 생각하는 바를 파악
- 참여자가 원하는 꿈, 희망, 목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도 가능,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인 것도 가능
- 참여자의 강점과 자산, 좋아하는 일(선호, 관심사)과 연결
- 참여자가 호소한 사회적 제한, 전반적인 삶에서의 어려움과 관련

- 본인이 원하는 변화와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원
- 원하는 변화와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원 파악
- 전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에서 나온 내용과 연결성이 필요함
- 참여자가 바라는 변화(꿈, 목표 등)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

- 개인이 시도하고 싶은 것(1~2년 내)
- 참여자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시도하고 싶은 일
- 전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꿈이라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가능성과 측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수립
- 1~2년 내 시도하고 싶은 주요 욕구와 하고 싶은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파트 3> 내가 원하는 삶의 계획

(1) 나의 주요 욕구 및 관심

-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
- 참여자가 본인이 원하는 변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범주화된 총 5개의 영역에서 파악함
- 참여자가 1~2년 내 시도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를 범주화하여 단기 목표를 기술
- 본인이 희망하기 위한 지원/서비스/자원을 구체적으로 기술

- 지원영역 및 서비스 예시: 다음 표와 같다.

<표 Ⅲ-3> 지원영역 및 서비스 예시

지원영역	지원 품목(서비스) 예시
1. 일상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원영역에서 승인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 및 인력지원 · (예시)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을 위한 이동지원 ○ 인력지원을 대체하는 물품 지원 · (예시) 주방보조 도구(써는 도구, 깎는 도구)
2. 사회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목적(자아실현, 취창업 연계 등)이 있는 사회활동 · (예시) 한 손으로 활용 가능한 '니팅머신 뜨개질 활동' ○ 승인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물품 지원 · (예시) 프로그램 계정 및 전문가용 컴퓨터
3. 경제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교육 · (예시1) 중증장애인 재택근무를 위한 컴퓨터교육 · (예시2) 창업을 위한 교육 · (예시3) 전문직(전문 작가, 수영심판, 작곡가, 인권 강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교육
4. 건강 및 안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 (예시) 언어장애로 인한 위축감 감소를 위한 노래 교실 이용
5.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을 위한 주택 개조 · (예시1) 화장실 안전바(상하 가동식) 설치비 · (예시2) 미끄럼 방지 매트 구매 · (예시3) 맞춤형 바닥 퍼즐 매트 · (예시4) 모서리 보호대 ○ 장애 맞춤형 주택 개조 · (예시1) 스마트 전등 스위치 설치 / IOT 스마트 스위치(리모컨 포함) · (예시2) 높이 조절 싱크대(활동 지원 미이용, 기존 주택 개조 사업 비해당) · (예시3) IOT 스마트 스위치 전등 자동 조명 · (예시4) 현관, 화장실 턱 경사로 슬로프 구매

- 지원자의 지원 필요성에 관한 의견
 · 지원의 필요성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Ⅲ-4> 지원의 필요성 점수

기준 항목	0점	1점	2점
지원의 필요성	지원의 목표와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	지원의 목표와 수단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	지원의 목표와 수단이 매우 적절하다.

○ <파트 4> 서비스 및 지원

(1) 개인별 서비스 및 예산 계획

- 참여자가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와 예산 계획을 요약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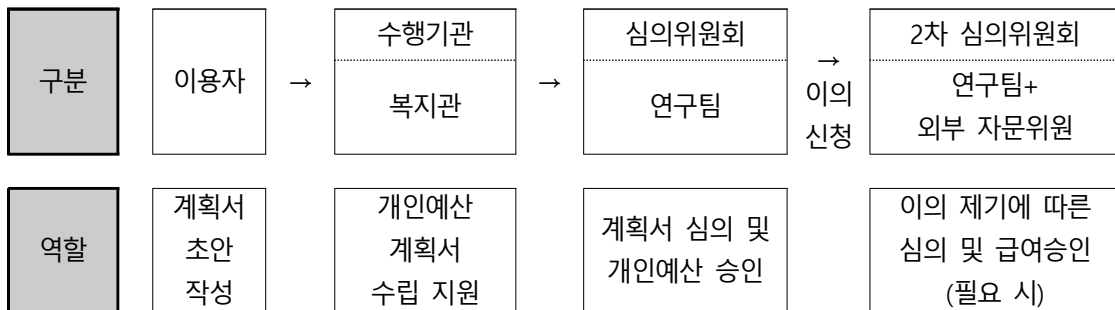
(2) 개인별 서비스 현황

- 활동지원 서비스 현황
 - 국가형과 서울시 추가급여를 구분하여 세부 내용(활동지원 구간, 급여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이용현황(총활동 시간, 급여비용, 제공기관) 기술
- 공공서비스(지자체 제공 서비스) 이용현황 파악
- 민간서비스 이용현황 파악

3) 개인예산계획 심의

□ 심의 절차

- 심의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Ⅲ-1] 개인예산계획 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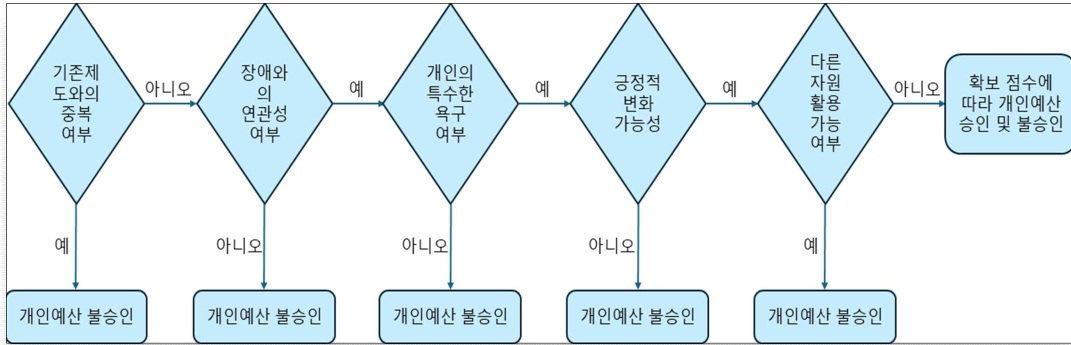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기능) 심의위원회는 개별 개인예산계획서 최종 검토 및 개별 급여량 승인
- (구성) 연구팀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복지관 내부 및 외부 인사 참여
- 참여자가 승인된 개인예산 급여량 관련 이의 신청 시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확정 급여량 개별 통보

□ 개인예산계획서 심의 및 승인

- (심의 기준) 최초 제출된 개인예산계획서 내용 바탕으로 심의
- 급여승인 기준
 - 급여승인 시 고려할 사항
 - 지원되는 서비스는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제도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지원되는 서비스는 장애와 연관성이 있어야 함 장애 정도, 유형,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서비스가 논리적으로 필요함이 입증
 - 장애인 개인의 특수한 욕구와 연관성이 있어야 함, 비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욕구(보편적 욕구)는 장애로 인한 욕구(개별욕구)로 판단하지 않음
 - 예상되는 변화가 긍정적이어야 하고, 일정 정도의 성과가 도출되어야 함
- 급여승인 기준 및 절차



[그림 Ⅲ-2] 급여승인 기준 및 절차

- 급여승인 기준 및 배점

<표 Ⅲ-5> 급여승인 기준 및 배점

기준 항목	0 점	1 점	2 점
장애와의 연관성	개인의 장애와 연관성이 없다.	개인의 장애와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	개인의 장애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
개인의 특수한 욕구	보편적 욕구에 해당한다	어느 정도 개인의 특수한 욕구이다	개인의 특수한 욕구이다
변화 가능성	지원에 의해 변화 가능성이 없다	지원에 의해 변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지원을 하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다른 자원 활용 가능 정도	다른 자원으로 해결 가능하다.	다른 자원을 찾는 것이 어렵다.	다른 자원이 없다.

4) 계약 및 정산

□ 계약

-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된 개별 개인예산계획서를 바탕으로 수행기관은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개인예산 계약 체결

- 기승인 계획에 따른 서비스 이용이 아닐 시 수행기관은 이용자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오남용된 서비스 예산은 환수 조치함

□ 개인예산 지급 및 집행

- 개인예산은 개인별 개인예산계획에 따라 월별로 연구 수행기관(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 신청 승인 전·후 서비스 단가가 변동하는 등 개인예산계획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기관 측에 예산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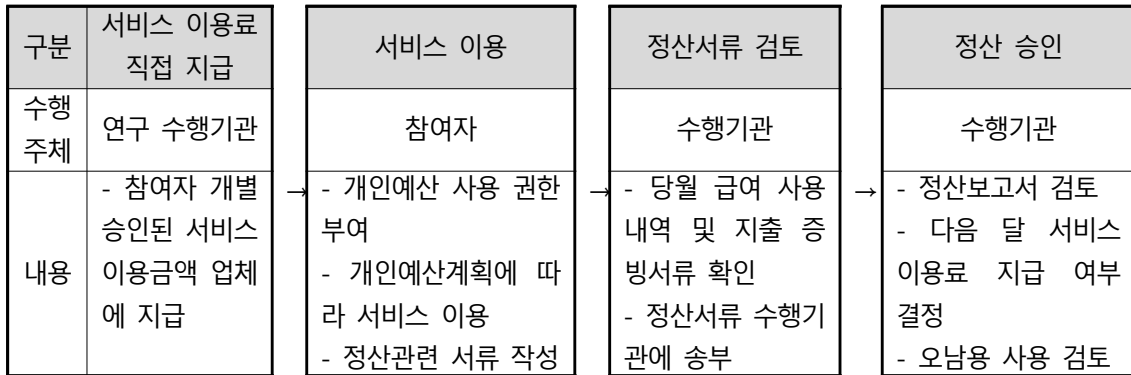
□ 예산 사용

- 수행기관에서 계획대로 사용하도록 지원, 오남용 방지 교육 및 점검
- 예산 사용 범위와 주의사항
 - 일부 예산의 경우 특정 용처 제한
- 예산 사용 금지 항목
 - 모든 불법적인 서비스, 활동, 재화 등
 - 적격현(eligible)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서비스, 활동, 재화
 - 이용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없는 서비스, 활동, 재화
 - 이용자를 재정적, 신체적 학대 또는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는 서비스, 활동, 재화
 - 주류 구매, 담배 구매, 복권 구매,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 가입
 - 통상적인 가구 유지 비용, 세금, 음식 비용(의·식·주를 위한 것)
 - 동일 가구 내에 거주하는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
 - 소득보장 형태의 사용: 개인예산은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이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개인 축적 불가. 따라서 사용 기한 내에 미사용 금액 반납 원칙

□ 개인예산 정산

- 개인예산 이용자는 전월 사용 내역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수행기관은 계획서에 따라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토록 함
- 전월 개인예산을 고의적으로 잘못 사용한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월 개인예산 서비스 비용 지급을 유예함. 이후 수행기관의 심의에 따라 개인예산제 지원 가격 박탈, 서비스 이용금액 환수 등의 조치 실행토록 함
-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질병, 건강악화, 사고 등)에 의해 미사용한 경우 사업 종료 시 까지 기간 이월하여 사용 가능

□ 정산 절차



[그림 Ⅲ-3] 정산 절차

□ 수행기관의 역할

- 개인예산계획서에 따른 서비스 예산 집행 내역 확인
- 전월 사용 확인 이후 계획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
- 전월 예산을 고의로 잘못 사용하였으면 해당 월 개인예산 지급 유예
- 정산보고서 검토 및 최종 승인
- 참여자가 고의로 예산을 잘 못 사용할 시 개인예산제 참여 자격 박탈, 서비스 이용료 환급 등 조치

□ 연구 수행기관(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역할

- 이용자 개별 승인된 서비스 금액 매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송부)

5) 모니터링

□ 사업 모니터링

- 목적 및 기능
 - 사업의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방안 등 도출
- 수행 주체
 - 연구팀
- 모니터링 기간
 - 2024년 5월~12월(8개월)
- 모니터링 내용
 - 개인예산계획 수립과정의 적절성 및 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한 의견
 - 개인예산계획 심의 과정의 적절성 및 역할에 대한 의견
 - 모니터링 과정의 적절성 및 모니터링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의견
 - 정산과정의 적절성 및 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한 의견
 - 전반적인 시범사업 운영 및 보완사항,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 참여자 모니터링

○ 목적

- 사업 참여자가 개인예산계획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상황 및 참여자의 환경, 욕구 변화 등을 점검하고, 환경 및 욕구 변화에 따른 개인예산계획 재수립의 필요성 점검 및 지원

○ 수행 주체

- 연구팀

○ 실행 시기

- 사업 수행 전·후 2회 실시

○ 실행방법

- 유선 또는 내방 상담(필요시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참여자의 가정방문 가능)

○ 모니터링 내용

- 개인예산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한 참여자의 변화 정도, 참여자의 환경 및 서비스 욕구 변화 등
- 개인예산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 서비스 제공 방법의 적절성 등
- 참여자의 욕구 및 환경변화에 따라 개인별 예산 이용계획 변경 및 참여 중지 여부 점검

6) 이의신청

□ 이의신청

○ 내용

- 참여자가 개인예산계획 합의 과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영역, 지원액 등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 수행기관은 2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 이의신청 기한

- 심의위원회로 최종 급여량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이의신청 절차 및 결정

- 참여자는 심의위원회 합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결정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이의신청 취소 가능)
- 2차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
- 2차 심의위원회는 기존 승인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참여자에게 통지

○ 결정 사항의 조치

- 수행기관은 이의신청 결과를 참여자에게 송부

IV. 실행연구 분석

1. 이용자 면담 결과

1) 조사 개요

이용자 면담은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예산제도 이용 초기인 8월 20일과 이용이 끝난 후 12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대면으로 이용자와 지원자가 함께 복지관 내 회의실에 모여 진행하였으며, 각각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의사소통 확인이 어려운 일부 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대신 참여하였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면으로 참석하기 어려웠던 소수 이용자는 이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참여하였다. 이용자 면담에 참여자는 개인예산제도에 참여한 전체 인원으로서 총 6명에 해당하며, 일반적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1>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장애유형	성별	연령	면담 참여자	1차	2차
참여자 1	지적장애	남성	30대	본인	대면	대면
참여자 2	지적장애	남성	20대	본인	대면	대면
참여자 3	자폐성장애	남성	20대	어머니	대면	대면
참여자 4	자폐성장애	남성	30대	어머니	대면	대면
참여자 5	뇌병변장애	여성	50대	본인 및 남편	서면	유선
참여자 6	시각장애	여성	40대	본인	서면	대면

이용자에게 질문한 주요 내용은 복지관 개인예산제도에의 참여 동기, 이용 과정에서의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 사업 참여로 목표를 달성한 정도 및 생활에의 영향 등이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2> 이용자 면담자의 주요 질문

구분	주요 질문 내용	간담회 차수
참여 동기	복지관 개인예산제도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1차
긍정적인 면	이용 시 좋았던 점, 인상에 남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타 지원 제도에 비해 의미가 있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1차, 2차
부정적인 면, 개선 필요 사항	이용 시 어려웠던 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1차, 2차
목표 달성 및 변화 / 성과	사업에 참여하며 자신이 원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까? 자신의 생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2차

2) 조사 결과

두 차례의 이용자 면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V-3> 이용자 면담 주요 결과

구분	상위주제	하위주제
(1) 참여 동기	① 새로운, 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활동 • 원하는 욕구에 맞춘 활동의 시작
	② 기존 활동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하는 활동에서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좋았던 점, 인상에 남았던 점	① 원하던, 나에게 맞춘 활동에 대한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던 활동으로 활동 자체에 재미를 느낌 • 나에게 맞춘 교육, 역량의 향상에 만족함
	② 경제적 부담으로 중단했던, 시도하지 못했던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부담으로 중단했거나 시도하기 어려웠던 활동을 진행함 • 기존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음
	③ 절차상 편리하고 유연한 방식과 적절한 관리에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지급 방식으로 자유로움 • 꼼꼼한 진행 일정 확인과 적절한 수준의 관리 • 복잡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정산 방식
(3) 이용 시 어려운 점, 개선해야 할 점	① 정보 접근성 및 이용처 확보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양식 등 필요 • 이용처 찾기의 어려움, 지역별 풀 제공 등 필요
	② 예산 사용의 유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적합하도록 매달 유연한 예산의 필요성
(4) 목표 달성 및 변화 / 사업의 성과	① 계획한 목표에 일정 수준 달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역량 향상에 만족함 • 비용 지원으로 이전보다 좋은 활동 환경 확보
	② 자신감과 성취감 확인, 관계 맺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신감을 획득함 • 자신의 컨셉을 찾아 생활 전반이 풍요로워짐 • 새로운 관계 맺기와 관계 속에서의 인정

(1) 참여 동기

① 새로운, 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복지관 개인예산제도 사업에 참여한 동기를 조사한 주요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이 사업을 통하여 기존에는 지원받지 못했었던 활동 또는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 기회로 삼았다. 제과제빵 교육, 수영과 헬스 PT, 조향 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등이었다. 이를테면 참여자 3은 성인기에 비용 부담으로 줄었던 음악교육을 다시 시도하였다. 학령기까지 음악치료에 대한 지원을 받았었지만, 일반 음악교육 지원은 없었기에 참여하였다. 참여자 1은 복지관 이용자로서 사고로 인해 저하된 다리 기능을 ‘재활을 해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참여자 3) 그래서 세상에 이런 제도가 있나. 이런 지원사업이 하나 해 가지고, 너무 좋아 가지고 지원하게 됐어요. (중략) 뭘 가르치려고 하면 조금 비용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인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 (중략) 이제 성인이 되면서도 조금씩 이제 줄이는 거죠. 그러던 찰나에 이것도 좀 가르쳐보고 싶은데... (중략) [기존에 유사 지원은?] 어렸을 때 그냥 음악치료 되는 치료자, 그게 음악 치료 쪽으로.

(참여자 1)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고.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았는지?] 이제 다리 재활 그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된 거요. (중략)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참여자 5) 불의의 사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수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회복과정에서 활동지원 혜택을 받던 중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자기계발 등 개인예산제에 참여 안내를 받고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② 기존 활동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처럼 중단되었거나 새로운 활동을 하기 위한 대부분 참여자와는 달리, 한 참여자는 기존에 하고 있던 미술 활동에 재료비 구매를 위하여 참여하였다. 고급 재료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었다.

(참여자 4) 성인이 되면서는 그 이후에 삶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쏟아붓듯이 쓸 수는 없어요. 어렸을 때 하고 달리 그래서 많은 거를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개인예산제로 인해서 저희 아들은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갑자기 이걸 받음으로 해서 재료가 확 늘었어요. 고급 재료가. 그래서 그 고급 재료를 좀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장점이었고

(2) 좋았던 점, 인상에 남았던 점

① 원하던, 나에게 맞춘 활동에 대한 만족

복지관의 개인예산제도 사업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인상에 남았던 점을 조사한 결과, 무엇보다 활동 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언급하였다. 계획부터 경험이나 취향, 동기를 고려한,

원하던 활동이어서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 1, 2, 3은 활동 자체가 재미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때 참여자 1은 중간에 만족하지 않은 헬스 PT를 중단하는 대신 좋아하는 수영 시간을 늘리기로 하였다. 또한 활동을 지속한 결과 자신의 역량이 향상된 점에 대한 만족도 표현하였다. 참여자 2는 강사가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라는 칭찬을 전하였고, 참여자 1은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수영 가능 거리가 늘어난 점에 만족을 표하였다. 한편, 자신에게 맞추어 진행되는 강의 방식에 대한 만족도 컸다. 이를테면 참여자 6은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일반 다수가 참여하는 조향교육 방식과 달리, 1:1로 자신에 맞추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하여 매우 만족감을 표하였다. 수영기술 향상에 만족한 참여자 3도 사실상 1:1 코칭 방식이며, 참여자 2도 소수가 참여하는 클래스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습득 속도, 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역량이 더욱 향상되었을 수 있다.

(참여자 3) 피아노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한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원받으면서 피아노를 이제 다시 처음 배우는 식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아해 재밌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면서도 “재밌다! 재밌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

(참여자 1) [헬스 PT] 괜찮은데요. 약간 괜찮은데요. 약간 강사님이 약간 이제 돌아다니세요. 자꾸 시키고 돌아다니는

(참여자 2) 처음에는 머리에 복잡하다가 몸을 의식하는 느낌으로 하나씩 괜찮아졌어요. (중략) 고등학교 때 얘기 드렸더니, 저 보고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고.

(참여자 1) 지금은 수영하면서 저기 25m까지 왕복은 하거든요. 그전에 못 했거든요.

(참여자 6) 확실히 왜냐하면 이게 조향 교육이라는 게요. 조향이라는 게 되게 듣기 힘든 클래스예요. 그리고 이게 강사분을 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하려면 혼자서 정말 많이 실패를 해봐야 되는 쪽이에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든 곳인데, 그것도 이제 1대 1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특화된 교육을 받은 거예요.

② 경제적 부담으로 중단했던, 시도하지 못했던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좋았던 점으로 참여 동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경제적 부담으로 중단했거나 시도하기 어려웠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필수적인 욕구 외에 문화적인 욕구와 관련해서는 간과되기 쉬운데, 이를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원하여 동기부여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경제적 지원으로 기존에 활동에서도 도움이 되었다. 관련하여 참여자 4는 필요한 물품을 아껴서 구입했었는데, 비용 지원으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좋다고 하였다.

(참여자 5)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항상 소외되었던 문화적인 욕구가 개인예산제의 지원으로 일부 해소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병상 생활로 경제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에서 접근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우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4)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어찌 됐든, 제가 필요한 물품을 부족했던 부분을 아껴서 사고 그랬던 부분을 이제 이 돈이 생김으로 해서 좀 넉넉하게 해서 사서 좀 자유롭게 편하게 쓸 수 있다.

③ 절차상 편리하고 유연한 방식과 적절한 관리에 만족

다음으로 사업 절차와 관련한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우선 예산이 선지급된 후 사후정산되는 방식이 장점으로 언급되었다. 견적서 제출, 견적서와 동일한 재료구입 등 다른 사업에서의 까다로웠던 절차와 비교할 때 자유롭다는 평가이다. 다음으로 이용과정에서 진행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면서도 관리 수준은 적절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테면 이용자의 만족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점에 만족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강사에게 교육일지를 요구하면 거부감을 표하기도 하고 일지 작성하느라 교육 시간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일지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원자에게 요청했는데 수용되어 좋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원과 달리 정산방식이 복잡하지 않았다는 점과 상황에 따라 유연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를테면 개인 레슨의 경우 지원받는 곳이 있다고 하면 수강료를 올리거나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경험을 했던 참여자 3의 가족은 영수증 요청 대신 이체확인증으로 증빙될 수 있도록 지원자에게 요청하였으며 수용되었다. 이로써 지원 사실이 개인 강사에게는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였다.

(참여자 4) 선불로 주시니까 가 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그것도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중략) 회원에 가서 견적을 뽑아와야 돼요. (중략) 제가 그걸 7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가서 그 재료를 똑같이 사요. 근데 더 추가가 되거나 더 빠지거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중략) 다른 곳에서 판매할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곳에 가서 또 견적을 받아서 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아요.

(참여자 3) 50분이면 50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시간을 선생님들이 레슨하시는 분들이 내가 오로지 시간을 떼서 그 시간에 그걸[일지를] 작성을 해주어 된다면 모르지만, 온전히 그 시간 안에 수업은 수업대로 나하고 그걸 따로 작성하면 추가적으로 선생님은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선생님[지원자]께 말씀드렸고, 흔

꽤히 또 배려로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 개인예산제도에 참여자를 위해서 많이 배려를 해주신 분들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참여자 6) 꼼꼼한 진행 일정 확인과 적절한 관리

(참여자 5) 오히려 불편함은 전혀 없었고, 집사람[참여자]도 선생님[지원자] 오시니까 되게 반가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꼭 모니터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환자가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지 계속 같이 대화하고 함으로써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접합점을 줄여 나가고, 그다음에 더 충족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다는 거는 굉장히 취지도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3) 그냥 개인들 레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영수증을 어떻게 받을 수도 없고, 그 써달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겪은 상황이지만, 모든 제도가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면 올려요. 가격을 (중략) 어렸을 때 애들 치료비도 그렇게 점점 단가가 올라가더라고 (중략) 그럴 경우에는 이체확인증으로 가능하다고 또 배려해 주셔서 그 부분 되게 감사하고 (중략) 제 돈이 들어가서 뭔가 교육받으면 성의껏 하는데 지원받아서 한다 하면은 희한하게 마인드가 틀려지는 게. 그런 부분이 제가 최근에 보면 이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3) 이용 시 어려운 점, 개선해야 할 점

① 정보접근성 및 이용처 확보의 필요

이용 과정에서 개인예산수립계획이나 사전·사후 설문지 등의 작성에서 자폐성장애인에 적용하여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곳이 장애 관련 기관이나 복지기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민간 이용처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사를 확인하여 연결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경로를 제공하거나 주관기관이 지역별로 이용처 풀(pool)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참여자 3) 자폐성 발달장애에 대한 적합한 질문인가 애네들이 과연 이거를 작성할 수 있는 질문지인가라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이번에도 들었고, 이거는 다른 장애인 분들은 다 이렇게 충분히 설문할 수 있는 그런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인데 자폐는 이런 생각 자체도 못하는데 질문지가 좀, 자폐성에 맞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참여자 5) 자기계발에 개인예산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 등이 현실적으로 찾기 힘들고 실제로 찾는다 해도 경제적인 한계로 일과성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략) 수혜자 스스로 자

기계발 루트를 찾고 집행하는 절차가 어렵다면 개인예산제도 주관기관이 지역별로
플을 제공하고 직접 정산하여 능률을 제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② 예산 사용의 유연성 향상

개인예산제도 사업이 예산 사용 범위와 사용처가 유연한 특성이 있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을 다달이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테면 매달 집행
방식은 교육과 같이 지속적인 활동 시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다달이
사용하는 양이 같지 않기에 유연한 적용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참여자 4) 여기는 이제 다달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좀 한꺼번에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왜 꼭 한 달에 얼마가 아니라, 그냥 첫 달에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다음 달에 안 쓸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자유로움은 있었어요. 근데 그
렇다고 해서 이게 뭐 불편하다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좀 유
연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중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료나 그런 거니까 그걸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었는데, 저렇게 이제 교육 운동이나 매달 나가야 되는 그런
거라면 맞는 것 같긴 해요.

(4) 목표 달성 및 변화 / 사업의 성과

① 계획한 목표에 일정 수준 달성함

복지관 개인예산제도에 참여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세웠던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통해 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계획으로 세웠으며, 이에 일정 수준 역량이 향상했다고 하며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의견이었다. 일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거나 스스로 참여도가 부족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그럼에도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이를테면 참여자 1은 ‘재활운동을 통한 신체 기능을 증진’을 목표로 세웠으며, 수영 강
습을 받았다. 수영 실력도 늘었고 사고로 힘들어진 걷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2는 ‘제과제빵 기능사 교육으로 구직을 위한 기능 향상’을 목표로 세웠으며, 제빵제과 학
원을 불참 없이 다녔고 다소 부족하지만 기술이 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3이 가족과 함께
세운 계획은 ‘합창단원으로 계속 재직할 수 있는 것과 기타·피아노 레슨을 받아 경연대회
등에 참가’라는 세부 목표를 세웠다. 성악, 기타, 피아노 레슨을 통하여 합창에 도움이 되었
으며, 특히 피아노를 당사자가 좋아하고 경연대회 나갈 정도는 아니지만 점차 실력이 향상되
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5는 ‘미술, 피아노 교습으로 신체적, 심리적 건강 회복’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며, 수업 참여로 손가락이나 목을 드는 기능 등이 향상되었으며, 사고 이전에
할 수 있었던 문화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6은
‘조향사 교육을 받고 향을 제조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조향교육으로 특정 향을

자신과 타인에 적용할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고 만족하였다. 향후 창업 시 접목할 수 있다는 점도 성과로 들었다.

이와 달리 기존 수행하던 미술활동에 재료비를 지원받았던 참여자 4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적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며, 재료비 지원으로 절약된 재정을 전시회 공간에 투자할 수 있었던 점을 성과로 언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전보다 좀 더 넓은 전시회 공간은 작품 전시에 직접적 도움이 되기도 하며, 아울러 설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 당사자가 전시 기간에 시간을 보내기 편안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참여자 1) 제가 좀 몇 번 빠진 적이 있어요. 잠들어갔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하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제 또 하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좀 남아요. (중략) 좀 평상시에 이제 걷는 거에 좀 이제 좀 집중해서 이제 그나마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어서 조금. (중략) 자유형 자유형까지 [수영장 끝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중간 정도가, 중간 정도까지

(참여자 2) 원래 제가 제과제빵 학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제빵을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제빵 끝나기 전에 수료증을 받았어요. 예전에 수료증 받아서 약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더 친한 사람들 헤어지고, 지금 제과를, 제과 기능사를 배우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제빵보다 제과를, 그 보편은 그 목표가 조금씩 생겨져요. [실력이 늘었나요?] 제빵보다 지금이[제과가] 많이 늘었습니다. (중략) [자신있는 것은?] 딱 하나였는데 놀러 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 꼬빼기나 호두파이 그런 거. 약간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제가[어머니] 원하는 목표는 혼자 이제 좀 공연도 좀 이제 하고 그런 저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기타나 피아노는 이제 애가 처음 접하는 거라서 그 부분이 이제 목표를 낮게 잡았어요. (중략)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해서 음정, 박자 길이 그거를 조금 익혔어요. 그래서 좀 피아노를 치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곡이 완성된 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은 알 수 있는, 그런 리듬을 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고요. [합창단원 유지에도] 당연히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 연결이 꽤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저기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미술 활동]이 단순히 그냥 그림그리고 문화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고, 결국은 환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중략) 집사람이 처음에 하기 싫어하고, 그냥 과거에 피아노를 쳤었고 이렇게 하면은 재활기능이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집사람이 손가락 기능도 많이 좋아지고, 왼손, 오른손, 양손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고개 들림도 약간은 완화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만족, ‘내가 [사고 전]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 문화적인 충족을 하고 있다.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결과적으로는 내 호불호를 알아가고, 나한테 특화된 교육을 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지도 알게 되잖아요. 주변이 그러니까 나중에 뭘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주변을 좀 넓혀가면서, 그 이후에 만약에 창업하거나 어딘가에 이렇게 개업할 때도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연출 자리 공간이나 배치 같은 거를 조향으로 배치할 때 도움이 어떻게 되겠다는 조언이라든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참여자 4) 여기서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재료값이 도움이 되니까 재료값을 어차피 들어야 될 돈들이 좀 더 개인적으로는 남잖아요. 그거를 갤러리로. (중략) 이번에는 여기 ○○동에서 좀 큰 곳 20평 정도 빌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시 하면서 퀄리티가 좀 올라간다고 그래야 되나 [당사자에게 의미는?] 어떤 감정적인 자기감정을 표현은 안 해요. 근데 전시 내내 즐거웠고 그 갤러리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중략) 그곳은 워낙 넓은 곳이어 갖고 이렇게 좀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가 거기서 다시 그림도 좀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있으면 지겨운데 서서 왔다갔다 해야 되고 좀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책상이랑 테이블이랑 이제 이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림도 그리면서 시간을 잘 보냈어요.

② 자신감과 성취감 확인, 관계 형성

개인예산제도 참여를 통한 활동으로 개인적으로 자신감과 자기만족감을 가지게 된 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역량과 취향을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이다. 이를테면 참여자 1은 '물공포증을 극복하고 싶어서' 수영을 선택하였으며, 결국 가능하게 되었다. 수영 강사에 따르면 처음에 주저하던 모습에서 점차 일단 시도라도 해보는 태도로 변했다는 것이다. 한편, 활동을 지역사회 내 새로운 공간에서 하게 되면서 비장애인을 비롯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며, 관계에서의 친밀성을 형성해 나가며 점차 큰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지원자인 복지관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은 점에 대한 만족감도 언급되었다. 참여자 스스로 느끼는 긍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느끼는 편안함과 인정이 자신감과 성취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자 1) [처음에 좀 주저주저하는 면?] 네, 맞아요. [자신감 생긴?] 네. 원래 저 물공포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나아진 거. [물공포증에도 어떻게 수영 선택?] 그게 좀 극복, 극복하고 싶어서 [극복이?] 네

(참여자 3) 너무 본인이 막 좋다고 재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땡땡땡땡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나비야를 치더라도 이제 자꾸 연습하면 나비야, 나비야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밌나 봐요. 그래서 애가 곡이 처음에는 땡땡땡땡 이렇게 소리가 음이 연결이 안 되다가 나중에 하면 할수록 연결이 되니까 애가 성취감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더 칠까?” 그러면은 더 쳐요.

(참여자 6) 많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 거라고 봐요. 얼마 전에 실례를 좀 들자면 티 클래스가 있어서 우리 그러니까 조향티를 만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한 서너번을 실패해도 제대로 맛이 안 나왔는데, 정말 한번에 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라고 했는데 최상의 레시피가 나왔어요. (중략) 그 향이라는 건 무언가를 더 맛있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더 기분 나쁘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합을 알게 되니까 전반적인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넓어졌다 그러나, 그래서 감각이 좋아지고 뭐가 아니고 뭐가 나빠졌고, 이게 어떤 게 내가 싫어하고 어떤 걸 내가 좋아하는지를 또 알게 됐잖아요.

(참여자 2) [1차 간담회 시] 약간 어색함도 있었지만, 제가 약간의 낯가림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배우고 있지만 약간 조금 친한 점도 있었습니다. [2차 간담회 시] 지금은 예전은 썩스럽지만 지금은 여전히(?) 안 썩스럽고, 다 같이 이시니까 뭔가 좋아졌어요. (중략) 약간 친구처럼. 친구처럼, 동생처럼, 형처럼, 누나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중략) [제일 좋은 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선생님이랑 □□님이, 팀장님까지 저를 감사히 고맙다고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빵[제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그거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2. 지원자 면담 결과

1) 조사 개요

‘지원자’는 이번 연구의 연구자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장애인복지관 개인예산 서비스 실천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복지관의 사례관리팀과 사회서비스팀에서 각각 3명씩 총 6명에 해당한다. 지원자 면담은 개인예산 서비스 시행 초기인 6월 21일과 사업 진행과 지원을 마친 후 12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복지관 내에서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각각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지원자 면담에 참여자는 개인예산 서비스 실천에 참여한 전체 인원으로서 6명에 해당하며, 일반적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4> 지원자 면담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소속	성별	지원 이용자	
지원자 1	사례관리팀	여성	참여자 5	뇌병변장애
지원자 2		여성	참여자 1	지적장애
지원자 3		남성	참여자 2	지적장애
지원자 4	사회서비스팀	남성	참여자 4	자폐성 장애
지원자 5		남성	참여자 6	시각장애
지원자 6		여성	참여자 3	자폐성 장애

지원자에게 질문한 주요 내용은 복지관 개인예산제도 사업 지원과정에서 느낀 어려운 점과 고민된 점, 지원자 생각의 변화와 보람, 아쉬운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이용자의 이번 사업을 통한 목표 달성과 변화, 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이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5> 지원자 면담자의 주요 질문

구분	주요 질문 내용	간담회 차수
지원 시 어려운 점, 고민이 된 점	지원과정에서 어려웠거나 고민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1차
지원자의 변화, 보람	지원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보람을 느꼈다면 어떤 것입니까?	1차
아쉬운 점, 개선 필요 사항	지원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차, 2차
목표 달성 및 변화 /사업의 성과와 한계	이용자가 정했던 목표에 달성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차

2) 조사 결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원자 면담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6> 지원자 면담 주요 결과

구분	상위주제	하위주제
(1) 목표 달성 및 변화 /사업의 성과와 한계	① 계획수립 시 목표의 달성	• 계획수립상의 목표에 일정 수준 도달(개인적 건강, 참여 정도의 변수)
		• 이용자의 욕구를 찾고, 이용 과정을 지원하여 목표 달성
	② 목표 외에 긍정적인 성과 확인	• 이용자의 욕구 명확하며, 변동 없이 목표 달성 (금전적인 지원 중심의 한계)
		• 새로운 관계에서의 친밀함에 만족함 • 지원 가족의 심리적 지원 및 정보제공
(2) 지원자의 인식 변화와 보람	① 지역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인식	• 저소득층 외의 이용자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을 인식함
	② 이용자 중심 지원을 고민하는 기회	•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깊이 살피는 기회
		• 이용자 욕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 • 지원 연계 가능성에서 벗어나 이용자 자율성 보장하는 기회 경험
(3) 지원 시 어려운 점 및 개선(준비) 필요 사항	① 계획수립 시 욕구 파악 및 합의에의 어려움	• 모르는 분야에서의 이용자 욕구에 대해서는 끌려가는 느낌이 듦
		• 이용자의 정보 취합 수위에 대한 고민
		• 욕구보다 성과를 중심에 둔 것이 아닌지 고민
		•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욕구의 판단에 고민이 됨, 의사소통 전략 등 방안 필요
	② 이용처 정보 찾기와 연계 과정에서의 어려움	• 욕구, 장애특성, 상황 등에 맞는 이용처 찾기와 연계에 시간 소모 및 제한
		• 민간 이용처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이용 제한
	③ 이용 과정에서의 변수로 인한 어려움과 준비 필요	• 단가, 활동 횟수 등 변경에 따른 행정 업무의 부담
		• 계획에 벗어난 결제 등 모니터링이 요구됨
④ 유연한 정산 방식과 준비 필요	• 개인 강사의 정산 방식에의 유연성 보장과 우려	
	• 차상위층 지원 방식에의 유연성 보장과 우려	

(1) 목표 달성 및 변화 /사업의 성과와 한계

① 계획수립 시 목표의 달성

지원자는 개인예산제도에 참여한 모든 이용자가 계획수립상의 목표에 일정 수준 도달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인적인 건강 상태나 활동 참여 정도가 일부 변수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목표 달성은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견은 이용자의 의견과 유사하다. 즉 목표 달성을 중단했다거나 달성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테면 지원자 1(참여자 5 지원)은 ‘미술, 피아노 교습으로 신체적, 심리적 건강 회복’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며, 초기에 누워서 몸을 움직이던 것에 비해 휠체어에 앉아 색칠하기 등도 가능하며, 피아노도 이전에 경험으로 금세 익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물론 건강의 변수로 인하여 외부 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계획은 중단하여야 했다.

지원자 2(참여자 1 지원)는 ‘재활운동을 통한 신체 기능을 증진’을 목표로 세웠으며, 수영 강습을 받았다. 초기 수영과 헬스 PT에서 중간 이후에는 참여자의 의견에 따라 수영으로 통합하였다. 수영을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점차 수영 가능 거리도 늘어 자신감도 얻었으며, 참여자가 스스로 다리 기능의 호전을 느낀다고 진술하였기에 향후 원하던 등산을 시도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지원자 3(참여자 2 지원)은 ‘제과제빵 기능사 교육으로 구직을 위한 기능 향상,’ 과 그 외 욕구로서 ‘체육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활동’을 목표로 세웠다. 제빵제과 학원 출석률은 100%였고, 복습과 새로운 재료를 다루는 숙련도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참여자 최고의 표현인 “재밌다!”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다만 농구와 같이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체육활동은 이용 자원을 찾기 어려워 결국 혼자 습득하는 댄스 종목으로 변경하게 된 한계는 있었다.

지원자 4(참여자 4 지원)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적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목표였고, 미술 활동 재료비 지원을 원하였다. 이에 예산을 일정대로 구입하여 미술 활동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성과로 언급하였다.

지원자 5(참여자 6)는 ‘조향사 교육을 받고 향을 제조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참여자에게 적합한 조향 강사를 섭외하여 정해진 10회기를 진행하였으며, 강사에 의해 들었을 때 기본적인 향을 제조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다고 하여 성과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지원자 6(참여자 3)은 ‘합창단원으로 계속 재직할 수 있는 것과 기타·피아노 레슨을 받아 경연대회 등에 참가’라는 세부 목표를 세웠다. 이에 참여자는 세 가지 레슨을 받았으며, 피아노 레슨 현장 방문을 통해 이용자가 흥미를 느끼는 모습에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초기 수립한 목표를 달성한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계획수립 과정을 통해 지원자가 이용자의 욕구를 찾는 과정을 지원하고, 이용 과정을 적극 지원하여 결국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경우이다. 이는 지원자 1, 2, 3의 경험에 해당한다. 이와 약

간 다르게 사업 참여 초기부터 이용자의 욕구가 명확하여 거의 그대로 목표를 잡고, 이용 과정에서 별다른 변동이 없어 지원이 거의 불필요하였으며, 결국 목표에 달성하게 된 경우이다. 이는 지원자 4, 5, 6의 경험에 해당하는데, 이들 지원자는 개인예산제도의 이용자 중심 지원이 금전적인 지원에 중심으로 진행된 점을 한계로 언급하였다.

(지원자 1) 계속적으로 재활이나 이런 회복의 과정을 좀 거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교류라든지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장하는 것이 목표이었던 것 같아요. (중략) 이제 우선은 그런 목표들이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건강 상황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목표는 다 이루셨던 것 같아요. (중략) 처음에는 거실에서 누워서 겨우 몸을 움직였다면 현재는 휠체어에 앉아서 활동지원사와 함께 글자 쓰기, 색칠하기 등의 활동을 참여하였다. 피아노 강습은 사고 이전에 피아노를 칠 줄 알았기에 금세 익히고 칠 줄 알게 되었다. 강사와도 안정적인 라포 형성으로 이어졌다.

(지원자 2) 수영과 헬스를 통한 신체 재활의 목표가 있었다. [중간 변경]부터 수영만 단독으로 진행하였는데 하반기의 출석률이 고르지 않아 재활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수영 실력이 전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변화가 있었다. 향후,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당사자 스스로 다리 기능의 호전을 느낀다고 진술했기에 등산을 시도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 3) 하나는 자기가 미래의 창업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배워보고 싶다 라는 욕구 하나와 두번째는 이제 체육활동을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활동에 가까운 그런 두 가지 욕구를 (중략) 결국은 좀 개인이 배우면서 또 혼자 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댄스로 저희가 이제 어찌됐건 목표를 설정하게 됐었고. 일단 체과제빵 기술을 역량강화 하는 거를 스스로가 가장 강하게 원했었기 때문에 (중략) 일단 출석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씨 스스로도 좀 강한 동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중략) 항상 좀 재미있더라는 표현을 계속했습니다. 저희 ○○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재밌다” 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여자와 저 또한 좀 원하는 정도를 달성했다고는 생각이 합니다. (중략) 참여자는 고등학생 때 배웠던 것들을 복습할 수 있고, 체과제빵 분야에서 새롭게 배운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재료를 다루는 것에 숙련도가 높아졌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원자 4) 원래 이제 미술을 했던 분이셨고, 저번에 10월에 했던 개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12번째 전시회일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중

략) 워낙 목표가 명확하니까 하고 싶은 게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일정대로 계획대로 사서 갖고 진행됐다 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중략) 우리가 갖는 개인예산제는 약간 금전적 지원 한편으로 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자 5) 워낙 뚜렷해서 저도 이렇게 그분이 욕구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너무 어렵지 않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분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창업이고요. (중략) 조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원했었고, 이제 조향할 수 있는 강사분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10회기로 해서, 이제 성과는 10회기 다 달성을 진행 일단은. (중략) 강사님은 그저 통화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산이 있대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할 수 있는 그거는 만들 수 있다고는 하셨어요.

(지원자 6) 워낙에 처음에 참여했을 때부터 목표가 되게 분명했었어요. 본인이 지금 하는 합창단에서 관련된 직업하고 관련된 욕구를 가지고 일단은 이거를 참여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정했던 목표인 피아노, 성악, 기타 레슨을 꾸준히 변경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피아노 레슨받는 학원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용자도 되게 흥미 있게 잘 이렇게 레슨을 받고 있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정했던 목표에서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꽤 높은 퍼센티지로 저는 달성했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중략) 한계라고 하면 워낙에 처음부터 너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중략) 제 이용자 같은 경우는 좀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았나라는 좀 약간 그런 아쉬움, 한계

② 목표 외에 긍정적인 성과 확인

개인예산제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운 목표 외에도 여러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가 된 점에 이용자가 만족하였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내 민간 이용처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비장애인과의 어울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이때 낯설어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지원자가 첫 수업 시에 함께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계획수립과 이용 과정에서 지원하면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장시간 지원하는 가족과 소통하며 심리적 지원을 하였으며 복지 관련 정보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다.

(지원자 3) 또 비장애인 수강생들 그러니까 □□씨 빼고는 다 비장애인 분들이셨는데, 이제 좀 형님, 형님 하면서 친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씨가 20살인데 형님이라고 부를 나이가 많은데, 이제 한 40살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그런 수강생분들이랑 형, 동생 하고 있다거나, 이제 □□씨가 이제 사교성 하나는 또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움 그 자체에서 또 즐거움 얻기보다 또 사회활동 하면서

오는 또 그런 만족감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원자 1) 부수적으로는 보호자가 배우자를 지원하면서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다 조금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들, (중략) 저하고 이제 이런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관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사업 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이용자셨기 때문에 복지관의 사업이나 또 이런 하는 활동들에 대해 좀 이해하는 시간이 좀 관계를 맺는 시간이

(2) 지원자의 인식 변화와 보람

① 지역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인식

평소 복지관 이용자는 저소득층 중심이었기 때문에, 한 지원자는 사업 초기에 저소득자가 아닌 사람을 지원하는 일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고민하기도 하였으나, 지원 과정을 통해 점차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밝혔다. 즉 이들도 경제적 비용을 비롯한 여러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개인마다 추구하는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지원자 1) (1차 인터뷰 시) 어쨌든 일반에 해당하시는, 이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완전 기존의 기준과는 다른 틀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이게 과연 약간 도움이 되는 부분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참 궁금하거든요. 처음엔 그러셨는데 가장 이게 저소득자 아닌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2차 인터뷰 시) 어느 정도 자부담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다 개개인마다 자부담이 있든 없든 간에 개개인마다 결국에는 추구하는 삶의 질은 결국 다 모두가 차이가 있고 또 이전에 추구했던 경험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도 분명히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② 이용자 중심 지원을 고민하는 기회

개인예산제를 지원하면서 지원자들은 이용자 중심 지원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테면, 한 지원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바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기존 상담 시는 이용자가 침묵 시 존중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단기간에 진짜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원자는 사회복지사 관점에서 이용자가 할 수 있을지 없을까를 판단하려는 자신의 태도를 깨닫게 되어 이를 개선하여 노력하였지만, 그럼에도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여전히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있음을 밝혔다. 바람직한 지원자의 역할에 대한 깊은 논의와 성찰이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자원 연계의 가능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했던 것과는 달리, 이용자의 최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기도 하였다.

(지원자 2) 저는 이거를 하면서 그래도 이용자분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고 지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끌리는 게 뭘까’ 이거를 고민하게 하는 좀 기회가 되었던 것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담에서 만약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용자분이 침묵했다 그러면 그 상담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적어도 몇 차례 계속 만나긴 해야 되고, 또 진짜 이분의 의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 또 다른 방식으로 관계 지도를 제시해서 또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저희도 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할 수 있게 해준

(지원자 3) (1차 인터뷰 시)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이분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자꾸 좀 판단하려고 본능적으로 그런 걸 좀 깨닫고, 그러지 않아야겠다 태도를 좀 더 저도 열린 태도로 접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2차 인터뷰 시) 다만 이제 욕구를 좀 축소시키고 아니면 변경하는 과정에서 ○○씨가 가지고 있는 정말 깊은 욕구는 무얼까 했을 때는 사실 창업인데, 창업을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씨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생활하고 있는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 작은 갈레부터 좀 뺀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또 ○○씨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지원자 3) 사실 사례관리 대상자를 대하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연계가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이거에 좀 초점을 두고 된다 안 된다고 접근을 했었다면, 이번에 이제 ○○씨랑 개인예산계획을 세우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선택지가 되게 많다고 느꼈고

(3) 지원 시 어려운 점 및 개선(준비) 필요 사항

① 계획수립 시 욕구 파악 및 합의에서의 어려움

계획수립 시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첫째, 계획수립 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었는데, 기존의 복지영역과는 달리 특히 음악, 미술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의 욕구에 대하여 지원자가 이해하고 함께 논의하며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때 기존 사업처럼 참고할 매뉴얼이나 자문이 없었기에 판단에 모호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계획수립을 위하여 이용자의 목표와 욕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정보의 취합 수위와 역량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계획수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개인적인 관계망을 비롯하여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다. 셋째,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 이용자의 욕구 중심보다 성과를 고려하던 기존 방식을 여전히 우선 적용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는 승인 기준에 ‘변화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관련 있을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욕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이다. 이번에는 지원자 나름의 방식으로 이용자의 욕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PCP나 PATH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원자 4) (1차 인터뷰 시) 저는 계속 그냥 뭔가 듣기만 하는 듯한 느낌, 뭔가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무조건 많이 들어서 이게 맞나라는 고민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이용자 욕구는 그래서 향후 2~3년에 좋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 라고 바람을 말하시는데, 대체로 좋은 갤러리에 대한 기준은 뭘까라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게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제일 좀 이렇게 긴장했던 것 같아요. (2차 인터뷰 시)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굉장히 전문가적인 영역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느낌

(지원자 6) 어디까지 이거를 여쭙보는 게 좋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이용자를 만날 때 내가 이런 걸 여쭙봐도 되나 이런 거 여쭙봤을 때 불쾌하지 않을까 너무 고민들이 항상 아직까지 좀 있고. 제 자신이 좀 그런 스킬이 부족하다, 이게 이끌어내는 스킬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원자 5) 요구하셨던 그런 요구 사항들이[정보 보조기기] 이제 보이더라고요. 저거는 늘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하는 그런 사업도 했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딱 생각이 나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그냥 그걸 커트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잘 내가 하고 있는지 좀 걱정 (중략) 그냥 너무 뭐랄까 요즘에 저희가 사실 성과 위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과 위주의 딱 남는 것들, 그 다음에 요즘 또 지원사업도 많고 하니까 [중복 지원 가능성? 성과?] 그러니까 투자 대비 어떤 성과가 제일 좋은 거 그런 걸 해서

(지원자 4) 의사소통 그거는, 정말 원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고. 의사소통 그분도 어떤 걸 써야 될지 (중략) 의사소통 어떻게 할 수 있는 뭔가에 좋은 게 있나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100% 제가 온전히 느낀 거를 가지고 또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맞나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지원자 1) 의사소통하시는 것도 PATH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도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오랜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계속 그것들을 받게 되는 거 어디까지 역량을 확장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소통을 끌어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② 이용자 정보 찾기와 연계 과정에서의 어려움

개인예산제도에서는 서비스 이용자나 사람을 특히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원이 많아 보임에도 실제 이용자의 욕구, 장애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이용처를 찾아서 연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지원자 3은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주말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원했지만, 풋살, 농구로 제한되었고 종목의 난이도 등의 문제로 결과적으로 개인이 혼자 습득하는 방식인 댄스로 목표를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원자 1은 뇌병변장애인인 이용자가 원했던 것은 아파트 내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피아노 교습소였으나, 물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워 대신 주거지에서 수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민간 영역으로 이용처의 확대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의 경로 확보와 이용에 관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이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관련하여 일부 지원자는 지역사회 자원 정보를 기관들이 공유하는 것, 서비스 제공 민간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용 의뢰 시 거절당하거나 조건을 추가하는 등의 차별적인 형태도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권익옹호 활동을 모니터링 활동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지원자 3) 자원이 뭐 이렇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 막상 또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모되었고 (중략) 주말에 뭐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하는 그런 체육활동 같은 것도 거의 이제 참여가능한 인원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종목이 두 가지였습니다. 풋살 아니면 농구였는데,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동호회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씨가 거기에 이제 어울려서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자기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더라고 얘기 대화하는 과정이 또 있었어 가지고, 결국은 좀 개인이 배우면서 또 혼자 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댄스로

(지원자 5)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보신 분들이 있느냐를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일단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이용자분이 오후에는 경제활동을 하고, 오전에는 이제 가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일단 어차피 시각장애인들이 학원에 간다해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붙어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혹시 제가 집에서나 조향교육을 해줄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 해줄 수 있는 분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또 마침 운이 좋아 갖고 해주시겠다는 분이 있으셨고 그렇게 섭외가 됐습니다. 인맥 동원을 하긴 했어요.

(지원자 1) 피아노 강습도 이제 원래는 커뮤니티 그린 센터 아파트 내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원래 하려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공간이 장애인에게 좀 좋은 공간은 아니고, 이것을 뭐 이런 디자인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정 내에서밖에 극한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원자 1) 일반시장 자원연계의 경우 얼마큼 기관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좁게 보면 각 기관의 경쟁력으로 정보를 얼마큼 갖고 있는 기관인지, 능력이 좋은 기관인지 평가할 수 있겠지만, 넓게 보면 지역자원 정보를(지역자원맵/자산맵핑) 모든 기관들이 공유하여 서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장애인친화업체, 상점 등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도 좋을 것이다.(제로페이를 활용하면 상점에 수수료가 없듯이)

(지원자 3)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학원 등을 탐색하였으나 이용자의 여건에 적절한 유관기관이 없었고, 일반시장에서도 제한적인 자원만 활용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예산제도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려면 장애인친화적인 일반시장의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 (중략) 일반시장 접근 시 이용 거절을 당하거나 조건이 추가 되는 등의 차별적인 행태는 현재까지 비일비재함을 느꼈으며, 지원자의 입장에서 권익옹호를 통해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모니터링 시 지원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의견 및 이용업체 관계자와의 짧은 소통으로 실시하였고 본 사업 진행 시에는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용자별로 개인예산지원을 활용하는 모습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방법 또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③ 이용 과정에서의 변수로 인한 어려움과 준비 필요

개인예산제도의 이용 과정에서 활동이나 금액의 변경 가능성은 유연성을 높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에 지원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금액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실제 단가 변경이나 활동에의 저조한 참여나 중단 등 여러 사유로 결제금액이 변경되면서, 이용처에 확인 과정과 행정적인 수정조치를 하면서 업무 부담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연성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과 만약 지원할 대상자가 증가할 경우 이러한 모니터링이나 행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지원자 4) 아무튼 제가 생각하면서 느낀 거는 이용자랑 좀 시작할 때부터도 많

이 만나야겠지만, 하고 나서도 계속 많이 만나서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같이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금액을 과감하게 늘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수도 줄여도 될 것 같은 그런 유연화가 좀 많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있어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자 2) 내·외부적 변수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스스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점점 담당자(지원자)의 개입을 기대하게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질적인 원인은 매뉴얼의 부재, 문제해결 역량의 부족 등이 있겠으나 각 자원 체계를 잘 증재하는 것도 코디네이터의 역할이기에 어디까지 관여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

(지원자 1) 정해진 원하는 서비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으나, 세부적으로 단가나 횟수가 달라지거나 건강상의 사유로 계획된 이용을 못하게 되면, 좀 행정적인 수정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 기관의 모의실행 사업이었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행정처리를 진행하였지만, 이게 앞으로의 그런 사업에서는 얼마만큼의 유연성을 갖춰야 할지는 좀 의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이용자가 만약에 많을 경우에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로서도 업무에 조금 부담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지원자 3) 처음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금액이 변경된 부분은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계속 연락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후에도 이제 재료비 관련해 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약간 또 임의로 바뀌어서 또 결제가 되어 있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만약 내년에도 추후에도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 했을 때, 명확하게 이제 결제를 진행하거나 그런 지원의 내용을 정한 대로 계획대로 다 실행할 수 없다는 좀 한계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은 좀 있었습니다.

④ 유연한 정산 방식과 준비 필요

개인예산제도에서 정산 방식의 유연성은 이용자 간담회에서도 장점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이를테면 개인장사의 경우 영수증 처리가 어렵거나 가격을 올릴 우려로 이체확인증으로 정산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액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수입으로 잡힐 우려로 이용처로 바로 이체한 것 등이다. 이용자 대상이나 이용처 확대에 있어 정산이나 회계처리와 관련한 유연한 조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 세부 기준과 관련된 논의가 요구되었다.

(지원자 1) 비용지불에 대해서는 워낙 이용하는 업종이라든지, 이용하는 횟수라든

지, 비용 단가, 선불이나 후불이나, 개인 강사나 등의 좀 하나의 양식의 모든 것을 담아서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

(지원자 6) 시범사업으로는 되게 유연하게 많이 했었잖아요. 제 이용자 같은 경우도 성악레슨은 개인 강사를 쓰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하는 게 굉장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고, (중략)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이게 향후에 기관 만약에 사업으로 정식사업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이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런 고민들이 있고 기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원자 5) 지금 차상위신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일단 입금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 이게 수입이 잡혀버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이거를 이제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또 우회해서 지원해 준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한테 잘한 거긴 하지만은 정말로 이 개인예산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3. 성과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복지관 개인예산제도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자 단일집단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개인예산제 참여 장애인들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를 수행하였다.

<표 IV-7> 참여자 사전·사후 조사 및 만족도 조사

구분	사전조사	사후조사
조사 시기	2024년 6월	2024년 11월 말
대상	사업 참여자 6인	사업 참여자 6인
조사 내용	자기결정, 자기효능, 사회참여, 부정적 감정, 삶의 만족 및 행복감	자기결정, 자기효능, 사회참여, 부정적 감정, 삶의 만족 및 행복감, 사업의 만족도
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조사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	자기기입식 조사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

2) 사전·사후 조사 결과

(1) 자기결정

복지관의 개인예산제도에 참여한 이용자의 자기결정 수준 전체 문항에 대한 사전, 사후 차이를 확인한 결과, $t=0.542$, $p=0.61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개인예산제도 경험 사후의 자기결정 수준은 전체 문항으로 볼 때 오히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다만 유의한 차이로 낮아진 것은 아니다.

<표 IV-8> 자기결정 수준 전체 통계

구분	응답빈도	평균	표준편차	t(p)
사전	6	2.83	0.25	0.542(0.611)
사후	6	2.81	0.34	

* $p<0.05$

자기결정 수준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18개 문항 중 2번, 3번, 7번, 8번, 11번, 12번의 6개 문항은 증가하였다. 다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즉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편이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편이다’,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좋아한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실망하지 않는다’, ‘자신의 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항목에서의 사후 점수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상승하였다.

<표 IV-9> 자기결정 수준 문항별 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문항 1	사전	3.67	.816	.333	.542	.611
	사후	3.50	.548	.224		
문항 2	사전	3.17	.408	.167	-1.000	.363
	사후	3.33	.516	.211		
문항 3	사전	3.33	.516	.211	-1.581	.175
	사후	3.67	.516	.211		
문항 4	사전	2.67	1.033	.422	1.000	.363
	사후	2.50	1.049	.428		
문항 5	사전	3.50	.548	.224	1.000	.363
	사후	3.33	.516	.211		
문항 6	사전	3.17a	.753	.307	-	-
	사후	3.17a	.753	.307		
문항 7	사전	2.67	1.033	.422	-1.581	.175
	사후	3.00	.894	.365		
문항 8	사전	2.67	.516	.211	-1.000	.363
	사후	2.83	.408	.167		
문항 9	사전	2.50	.837	.342	1.581	.175
	사후	2.17	.753	.307		
문항 10	사전	3.33	.816	.333	1.000	.363
	사후	3.17	.753	.307		
문항 11	사전	2.50	.548	.224	-.791	.465
	사후	2.83	.753	.307		
문항 12	사전	2.17	.753	.307	-1.581	.175
	사후	2.50	.548	.224		
문항 13	사전	2.67	.816	.333	.000	1.000
	사후	2.67	.816	.333		
문항 14	사전	2.83	.753	.307	.277	.793
	사후	2.67	.816	.333		
문항 15	사전	2.50	.837	.342	1.464	.203
	사후	2.00	.894	.365		
문항 16	사전	2.67	.816	.333	.542	.611
	사후	2.50	1.049	.428		
문항 17	사전	2.50	.548	.224	.000	1.000
	사후	2.50	.837	.342		
문항 18	사전	2.50	1.049	.428	1.581	.175
	사후	2.17	1.169	.477		

(2) 자기효능

개인예산제도에 참여한 이용자의 자기효능 정도에 사전, 사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t=0.237$, $p=0.82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개인예산제도 경험 사후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의한 차이로 증가한 정도는 아니었다.

<표 IV-10> 자기효능 수준 전체 통계

구분	응답빈도	평균	표준편차	t(p)
사전	6	2.46	0.60	0.237(0.822)
사후	6	2.48	0.62	

* $p<0.05$

자기효능 수준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9개 문항 중 5번, 7번의 2개 문항이 증가하였다. 다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즉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에 부딪칠 때 나는 보통 몇 가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의 항목에서의 사후 점수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상승하였다.

<표 IV-11> 자기효능 수준 문항별 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문항 1	사전	3.00	.894	.365	.000	1.000
	사후	3.00	.632	.258		
문항 2	사전	2.83	.753	.307	.000	1.000
	사후	2.83	1.169	.477		
문항 3	사전	2.33a	1.033	.422	-	-
	사후	2.33a	1.033	.422		
문항 4	사전	2.33	.516	.211	1.000	.363
	사후	2.17	.408	.167		
문항 5	사전	2.17	.408	.167	-1.000	.363
	사후	2.50	.837	.342		
문항 6	사전	2.50	.837	.342	1.000	.363
	사후	2.00	.632	.258		
문항 7	사전	2.00	.632	.258	-1.195	.286
	사후	2.67	1.033	.422		
문항 8	사전	2.50	.837	.342	1.000	.363
	사후	2.33	1.033	.422		
문항 9	사전	2.50a	.837	.342	-	-
	사후	2.50a	.837	.342		

(3) 사회참여

개인예산제도에 참여한 이용자의 사회참여 정도에 사전, 사후 차이를 확인한 결과, $t=0.237$, $p=0.82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개인예산제도 경험 사후의 사회참여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의한 차이로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표 IV-12> 사회참여 수준 전체 통계

구분	응답빈도	평균	표준편차	t(p)
사전	6	2.35	0.55	0.257(0.808)
사후	6	2.37	0.66	

* $p<0.05$

사회참여 수준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16개 문항 중 1번, 4번, 9번, 11번, 13번의 개 문항이 증가하였다. 다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즉 ‘동료가 하듯이, 집 안, 집 밖과 동네를 다닐 수 있습니까’, ‘동료가 하듯이, 자신의 용모, 건강, 영양 등을 신경 쓸 여건이 되십니까’, ‘동료처럼, 이웃이나 친구, 친척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종교생활이나 지역사회 모임에서 동료만큼 활발한 활동을 합니까’,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주요 행사에 동료만큼 참여합니까’의 항목에서의 사후 점수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상승하였다.

<표 IV-13> 사회참여 수준 항목별 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문항 1	사전	2.17	0.983	0.401	-1.000	.363
	사후	2.33	0.817	0.333		
문항 2	사전	2.20a	1.095	0.490	-	-
	사후	2.20a	1.095	0.490		
문항 3	사전	2.67a	0.516	0.211	-	-
	사후	2.67a	0.516	0.211		
문항 4	사전	2.33	0.516	0.211	-1.000	.363
	사후	2.50	0.548	0.224		
문항 5	사전	2.00	1.000	0.447	.000	1.000
	사후	2.00	0.707	0.316		
문항 6	사전	2.40	0.548	0.245	.535	.621
	사후	2.20	1.095	0.490		
문항 7	사전	2.67a	0.817	0.333	-	-
	사후	2.67a	0.817	0.333		
문항 8	사전	2.83	0.408	0.167	.415	.695
	사후	2.67	0.817	0.333		
문항 9	사전	2.33	1.033	0.422	-1.000	.363
	사후	2.50	0.837	0.342		
문항 10	사전	2.50	0.837	0.342	1.000	.363
	사후	2.33	1.033	0.422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문항 11	사전	2.17	0.983	0.401	-1.000	.363
	사후	2.33	1.033	0.422		
문항 12	사전	2.00	0.894	0.365	1.000	.363
	사후	1.83	0.753	0.307		
문항 13	사전	2.20	1.095	0.490	-1.000	.374
	사후	2.40	0.894	0.400		
문항 14	사전	2.50	0.837	0.342	1.000	.363
	사후	2.17	0.983	0.401		
문항 15	사전	2.33	0.817	0.333	.542	.611
	사후	2.17	0.753	0.307		
문항 16	사전	2.60	0.548	0.245	.000	1.000
	사후	2.60	0.894	0.400		

(4) 부정적 감정

개인예산제도에 참여한 이용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정도에 사전, 사후 차이를 확인한 결과, $t=0.542$, $p=0.61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개인예산제도 경험 사후의 부정적 감정 정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의한 차이로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표 IV-14> 부정적 감정 느끼는 수준 통계

구분	응답빈도	평균	표준편차	t(p)
사전	6	2.67	.516	.542(.611)
사후	6	2.83	.753	

* $p<0.05$

(5) 삶의 만족 및 행복감

개인예산제도에 참여한 이용자의 삶의 만족 및 행복감 정도에 사전, 사후 차이를 확인한 결과, $t=2.180$, $p=0.08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개인예산제도 경험 사후의 삶의 만족 및 행복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표 IV-15> 삶의 만족 및 행복감 수준 통계

구분	응답빈도	평균	표준편차	t(p)
사전	6	2.85	0.30	2.180(0.081)
사후	6	3.00	0.44	

* $p<0.05$

삶의 만족 및 행복감 수준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11개 문항 중 4번, 7번, 8번, 9번, 10번의 개 문항이 증가하였다. 다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즉 ‘귀하는 귀하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귀하의 친구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귀하가 살고 있는 장소의 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귀하가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의 항목에서의 사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상승하였다.

<표 IV-16> 삶의 만족 및 행복감 수준 항목별 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문항 1	사전	2.50	.548	.224	1.581	.175
	사후	2.17	.753	.307		
문항 2	사전	2.83	.983	.401	.000	1.000
	사후	2.83	.983	.401		
문항 3	사전	3.17	.753	.307	.542	.611
	사후	3.00	1.095	.447		
문항 4	사전	2.50	.837	.342	-1.000	.363
	사후	3.00	.632	.258		
문항 5	사전	2.83	.753	.307	1.581	.175
	사후	2.50	.837	.342		
문항 6	사전	3.00a	.816	.408	-	-
	사후	3.00a	.816	.408		
문항 7	사전	3.00	.632	.258	-1.000	.363
	사후	3.33	.516	.211		
문항 8	사전	2.67	.516	.211	-2.000	.102
	사후	3.33	.516	.211		
문항 9	사전	2.83	.408	.167	-1.581	.175
	사후	3.17	.408	.167		
문항 10	사전	3.17	.408	.167	-1.581	.175
	사후	3.50	.548	.224		
문항 11	사전	3.50a	.707	.500	-	-
	사후	3.50a	.707	.500		

3) 만족도 조사 결과

복지관의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1점~4점),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63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개인예산제도의 시행 과정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이용계획수립 및 합의’ 과정과 ‘정산’ 과정의 평균 점수가 모두 3.67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급여 이용’ 과정이 3.46점, ‘신청’ 과정이 3.50점, ‘정보제

공' 과정 3.06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반적인 만족도는 3.63점이었으나, 개인예산제도를 추천할 의향과 향후 참여할 의향에 대해서는 3.42점으로 만족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문항 점수를 살펴보면, 첫 번째, 가장 낮은 점수였던 정보제공 과정에서 특히 점수가 낮은 것은 '귀하는 개인예산제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까?' 문항으로 2.27점에 해당하였다. 두 번째, 신청 과정에서는 신청의 편리함이 3.33점으로 신청 결과에 대한 안내와 회신의 신속과 정확함의 3.67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세 번째, 이용계획수립과 합의 과정은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과정 중 하나로서 이에 속한 3개 문항 모두 점수가 동일하게 3.67점이었다. 네 번째, 급여 이용 과정에서는 원활한 진행과 문의 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3.50점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적절한 대응에 대한 점수가 3.67점으로 높았다. 다섯 번째, 정산 과정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하나로서 이에 속한 2개 문항은 모두 3.67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만족도의 5개 문항 중 서비스 내용, 담당자 및 담당기관, 기대에의 충족, 전반적 만족도가 모두 3.67점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절차에 대한 만족은 3.50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한 주변에 추천할 의향은 3.33점이었으며²⁾, 향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개인예산제 사업을 수행한다면 참여할 의향은 3.50점으로 나타났다.³⁾ 이는 높은 점수이나 만족도 점수인 3.67점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2) 이용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면 추천 의향이 낮은 것은 '경쟁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것'도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용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면 참여할 의향이 낮은 것은 '복지부의 시범사업에서 활동지원 시간의 일부로써 사용하면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이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7> 개인예산제 사업에 관한 만족도 수준 항목별 통계

(빈도 n=6)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보제공	문항 1	1	4	2.67	1.211
	문항 2	2	4	3.17	.753
	문항 3	2	4	3.33	.816
정보제공 전체		2.33	4.00	3.06	.772
신청	문항 4	2	4	3.33	.816
	문항 5	3	4	3.67	.516
신청 전체		2.50	4.00	3.50	.632
이용계획수 립 및 합의	문항 6	3	4	3.67	.516
	문항 7	3	4	3.67	.516
	문항 8	3	4	3.67	.516
이용계획 수립 및 합의 전체		3.00	4.00	3.67	.516
급여 이용	문항 9	3	4	3.50	.548
	문항 10	3	4	3.50	.548
	문항 11	3	4	3.67	.516
급여 이용 전체		3.00	4.00	3.56	.502
정산	문항 12	3	4	3.67	.516
	문항 13	3	4	3.67	.516
정산 전체		3.00	4.00	3.67	.516
전반적인 만족도	문항 14	2	4	3.50	.837
	문항 15	3	4	3.67	.516
	문항 16	3	4	3.67	.516
	문항 17	3	4	3.67	.516
	문항 18	3	4	3.67	.516
전반적인 만족도 전체		2.80	4.00	3.63	.572
추천 및 참여 의향	문항 19	2	4	3.33	.816
	문항 20	3	4	3.50	.548
추천 및 참여 의향 전체		2.50	4.00	3.42	.585

4. 사업 참여 당사자의 이야기(story): 선호-계획-실행-성과 중심으로

1) 참여자 1(지적장애, 남성, 30대)

참여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역동적인 활동을 좋아했으며, 여러 종류의 스포츠를 좋아한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편이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경향이 있다. 채용 면접 시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시선을 받을 때가 많았으며, 20대 당한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면서 더욱 마음이 위축됨을 느끼곤 하였다. 평소에 취미활동인 스포츠나 등산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지만, 사고 이후에는 허리와 다리 기능 손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가 어렵다. 근무시간 외에는 낮잠을 자거나 배회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실정이다.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축구, 농구 등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고, 등산과 같은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1, 2년 사이에는 다리 기능이 나아지면 정상까지는 못 오르더라도 낮은 산에 올라가 보고 싶은 꿈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맞춤형 개인 강사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수영, 헬스, PT를 배우고 싶다.

이처럼 자신의 욕구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 늘 주변을 챙기던 참여자는 정작 자신의 욕구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는 일이 처음이라고 지원자에게 말하였다. 몇 차례 지원자와의 만남을 통해 개인예산 계획 수립 시 목표를 ‘재활 운동을 통해 신체 기능 증진’으로 정할 수 있었으며, 수영과 개인 PT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수영 개인 강습 비용과 헬스 PT 비용으로 각각 매월 4회씩 예산을 책정하였다. 지원자는 기관과 강사의 정보를 찾아서 연계하였다(장애인재활훈련기관[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센터]-수영/장애인복지관-PT). 수영과 PT를 병행하던 중, 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PT를 중단하고 대신 수영 강습 시간을 늘렸다. 이는 PT에 대한 개인의 흥미가 낮아졌기 때문인데, 다리 재활 기능 향상을 원하는 당사자 입장과 정확한 진단 없이 다리의 재활에만 집중하기 어렵다는 강사와의 입장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예산제로 참여한 5개월 동안의 활동에서 참여자는 수영을 통해 “좀 평상시에 이제 걷는 거에 좀 이제 좀 집중해서 이제 그나마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어서” 라며 사고 후 힘들어졌던 걷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된 기회도 되었다. “물 공포증을 극복하고 싶어서” 수영을 선택하였으며, 결국 25m 왕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였다. 처음에 주저하던 모습에서 점차 일단 시도라도 해보는 태도로 변했다고 수영 강사는 지원자에게 전하였다. 물론 참여자는 낮잠을 자서 몇 번 출석을 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는 점에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본래 목표로 했던 신체, 특히 다리 기능이 본인이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 외에 수영 역량의 향상을 통한 성취감과 두려움 속에서 시도하며 느낀 자신감을 성과로 얻었다고 할 수 있다.

2) 참여자 2 (지적장애, 남성, 20대)

환경미화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고, 제과제빵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바리스타 근무를 원하여 여러 번 채용 면접을 보았지만, 체형이나 부족한 역량을 이유로 채용되지 못하였다. 장기적으로 카페를 창업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후원하며 살고 싶은 꿈이 있다. 이를 위하여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기술을 강화하고 싶고, 특히 라테 아트 기술을 장점으로 특화하고 싶다. 체중도 감량하여 외모도 가꾸고 싶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인예산계획 수립 시 ‘제과제빵 기능사 교육을 통한 구직을 위한 기능 향상’ 과 ‘커피 기계 다루는 법을 다시 익히고, 라테 아트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다’ 라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를 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과제빵 학원을 비롯하여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바리스타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퇴근 후 시간에 제과제빵을 배울 곳이나 바리스타 중 라테 아트에 관한 집중과정 등 참여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처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에 지원자가 찾은 가능한 자원을 두고 참여자와 계속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목표를 일부 수정하였다. ‘제과제빵 기능사 교육을 통한 구직을 위한 기능 향상’ 과 ‘체육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 활동’ 으로 변경한 것이다. 변경된 목표에 따라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와 댄스 학원을 정하였으며(비장애인 수강생 원데이 클래스 / ○○○댄스 학원-댄스), 비용으로 5개월 동안 각각 매주 1회씩 예산을 책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예산제로 참여한 베이킹 활동에서 참여자는 결석 없이 다녔으며, “파베기나 호두파이 그런 거. 약간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기술이 늘었다고 하였다. 지원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았다. 출석률 100%임을 비롯하여 복습과 새로운 재료를 다루는 숙련도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참여자의 최고의 표현인 “재밌다” 라는 말을 해왔던 것을 성과로 본 것이다. 한편 베이킹 클래스에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도 “약간 친구처럼. 친구처럼, 동생처럼, 형처럼, 누나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라며 만족을 표현하고 있다. 베이킹 과정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었다.

한편 농구와 같이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체육활동은 이용 자원을 찾기 어려워 결국 개인이 습득하는 방식의 댄스 종목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참여자는 케이팝 아이돌에 관심이 높아서 방송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고, 학원 원장이 복지기관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신청하였다. 강사는 총 3명이었고 지적장애를 가진 강사님, 비장애인 또래 수강생 2명 매월 노래 한 곡을 정해 안무를 배우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강사를 만나 친해질 수 있었고, 춤을 추면서 체력을 기르고 약간 살을 뺐어요.” 라며 만족을 표하였다. 목표로 했던 제과제빵 기술이 향상되었고, 또한 지역사회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면서 관계 형성에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으며, 댄스 수업을 통해 체력 증진과 체중감소를 성과로 얻었다고 할 수 있다.

3) 참여자 6 (시각장애, 여성, 40대)

헬스 키퍼로 평일 오후에 근무하고 있으며, 한 복지기관에서 역학 초급반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참여자는 스스로 원하는 목표가 명확하였다. 사주 등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주카페를 창업하고 싶다. 평범한 사주카페가 아닌, 본인이 직접 만든 향을 통해 손님에게 안정감을 주고 라포를 형성하며 상담하는 독특한 카페를 원하였다.

조향사 교육과정을 받고 싶었지만, 재료비가 비싼 편이고 비장애인 위주의 교육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참여자에게 장소가 멀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개인예산계획수립 시 목표를 ‘조향사 교육을 통해 향을 제조할 수 있다’로 정하였다. 이에 지원자로서 지원의 관건은 참여자의 장애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강사를 찾아 연계하는 일이었다. 조향사 교육을 하는 강사는 많았지만, 우선 시각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강사를 찾았으며, 다음으로 이동 시 이동 지원이 필요하며 오전에만 여유 시간이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했다. 그래서 참여자의 주거지에서 오전 시간에 1:1로 강의를 해줄 강사를 찾고자 하였다. 지원자가 평소 구축해 둔 시각장애인 관련 네트워크를 통하여 강사를 찾아 상황을 설명하여 결국 연계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목표했던 총 10회기에 비용을 지원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예산제로 평소에 원하던 조향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참여자는 “나한테 특화된 교육을 주니까” 특정 향을 자신과 타인에 적용할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고 만족하였다. 향후, 카페 창업 시 접목할 수 있다는 점도 성과로 들었다. 기본적인 향을 제조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다고 강사는 지원자에게 전하였다. 한편, 부차적인 성과로서 참여자가 자신감과 자기만족감을 얻은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교육 이후 참여한 조향티 클래스에서 누구보다 먼저 최상의 레시피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만족을 표하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향을 찾을 수 있어 자기 취향을 알게 되었으며 생활이 “전반적으로 풍요로워졌다”며 상당한 만족을 표현하였다. 참여자 본인이 평소에 그토록 원했음에도 적합한 자원을 찾기 어려웠던 만큼, 개인예산제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었고, 수강 결과로 개인의 조향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점에서, 게다가 조향으로써 삶 전체가 풍요로워졌다고 할 만큼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실행의 재구조화

이 장에서는 사업 초기에 시행모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하였거나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주로 시행모형에서의 서식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매달 진행된 연구진(지원자 포함)의 회의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수시로 논의 및 결정된 사항에 기초한 것이다.

1) 서식 수정 및 개선 필요 사항

① 개인예산제 사업 신청서

첫째, <파트 1> 기본정보의 ‘1. 인적사항’ 에서 ‘거주 현황’ 작성 시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작성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원자의 의견에 따라, ‘거주 현황’ 하위에 ‘부모님 동거 여부’ 확인란을 추가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일단은 기존 서식 옆에 ‘부모와 동거 중’ 을 기입하여 해결하였다.

거주 현황	주택소유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주택 유형	<input type="checkbox"/> 아파트(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독주택(다가구 등)
	부모 동거 여부	<input type="checkbox"/> 거주시설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부모와 동거	<input type="checkbox"/> 부모와 비동거	

[그림 IV-1] 거주 현황 수정안

둘째, <파트 1> 2.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능력에서 ‘책 읽기’ 에 대한 지원의 필요 정도 확인과 관련하여, 어떤 ‘책’ 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지원자의 질문이 있었다. 문자 읽기와 이해에 관한 질문이므로 사전 조사지를 책으로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셋째, 서식에서 ‘지원의 필요성’ 에 대한 작성이 중복되고, 이는 사전신청서의 지원의 필요성과도 중복되어 조정을 요청하는 지원자가 있었지만, 중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전신청서와 개인예산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담당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신청서 내용에 표기하여 다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장점 등의 이유였다. 따라서 이번 사업에서는 서식에서의 ‘지원의 필요성’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② 사전·사후 질문지

첫째, 사전·사후 질문지의 문항이 이용자가 작성하기에 많아 답변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원자의 의견에 따라 주요한 문항을 중심으로 축소하였다. 특히 가족에 관한 문항은 모두 제외하였다.

<표 IV-18> 사전·사후 질문지 변경 전·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역	자기결정, 자기효능, 사회참여	동일
	삶의 질 전반	삶의 질 일부 선택 (부정적 감정, 삶의 만족 및 행복감)
	가족 건강성, 가족 응집력	삭제

둘째, 사전·사후 질문지의 문항이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문항 검토 후 수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사전 질문지 작성을 진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데, 활동 참여 여부를 묻는 방식이다.

2) 절차상 수정 적용 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

첫째, 이용자의 모니터링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사업 초기 시행 모형에서 모니터링의 목적은 ‘사업 이행상황 및 참여자의 환경, 욕구 변화 등을 점검하고, 환경 및 욕구 변화에 따른 개인예산계획 수립의 필요성 점검 및 지원’이며, ‘유선 또는 내방 상담(필요시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참여자의 가정방문 가능)’을 실행방법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모니터링을 위하여 교육 등의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한 이용자는 개인 강사로부터 레슨을 받고 있어 비용 지원 사실을 강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유로(가격 증가 우려) 현장 모니터링을 받지 않을 것을 지원자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필요시 이용자의 동의하에 현장을 방문하여 보는 것이며, 만약 이용자가 거부하거나 불가능하거나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지원자가 판단된다면 현장 방문 방식이 아니어도 된다고 정하였다. 대안으로 이용자와의 면담 등으로 의의제기 사항을 비롯하여 모니터링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지원자의 지원 범위와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예산제로서 새롭게 참여하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한 지원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한 이용자는 개인예산제도로 시작하게 된 활동을 위하여 퇴근 후 학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부족하여 교육이 끝난 밤에 식사하다 보니 복통이 발생하였다. 이에 지원자는 학원이 쉬는 시간에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은 제안하여 이용자가 일단 수긍하였다. 이후 복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인예산제도 수행을 지원하는 지원자의 역할 또는 수행기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선지급으로 진행된 후 실제 활동에 참여가 저조한 경우 사후 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외부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은 대부분 선지급을 요청하고 개인예산제도에서 선지급을 한 것은 수행에 있어 큰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교육기관

등에 이미 비용이 지급되었음에도 이용자가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결석이 잦은 경우 지원자로서 고민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참여자가 늦잠을 잤다거나 개인적인 중요한 일정이 생겨 불참을 당일 통보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연구진에서 논의하였다.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에 관한 사항이 쟁점이었다. 논의 결과, 일단 지원자가 참여자에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되 예산 집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향후 최저 수준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출석일이 20일 중에 11일 이상될 경우에만 100% 지원하는 기준이 있다. 11일 미만으로 출석을 하면 일부 자부담해야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타 사업에서의 기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개인예산 사업을 시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장애인복지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행 체계, 진행 절차, 운영 지침 등을 개발하고 이를 직접 적용해 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실행연구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만 제3장 모형 개발에서 제시된 사업의 목적, 수행 체계, 진행 절차, 운영 지침 등은 그대로 활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 재원으로 개인예산제도 실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개인예산 모형을 실행하기에는 자원 마련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개인예산 모형은 지자체가 수행 주체가 되는 모형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예산 모형을 실행하는 모형과 지자체 단위에서 개인예산을 실행하는 모형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1.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실행 모형

1) 수행 체계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개인예산제도 수행 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V-1>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예산제도 수행 체계

기관		역할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의 용처 및 사용량을 자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 및 집행, 선택과 통제권을 갖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팀 / 사회서비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개인예산제 사업총괄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 참여자 모집(발굴), 신청접수, 선정 • 사업 참여자 개인예산계획 작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 개인예산계획 작성 및 수립 지원 • 개인예산계획 승인 및 계약 • 사업 참여자에게 개인예산 지급 • 지역별 자원(서비스 제공기관, 용처) 목록 작성 • 개인예산 용처 지정 및 계약 • 사업 참여자 개인예산 이용 지원, 모니터링 및 오남용 점검 • 사업 참여자 정산 지원 및 정산 승인 • 사업 수행 관련 제반 행정 사항 처리 • 사업 모니터링, 결과분석, 성과평가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예산계획서 검토 및 급여승인 심의 ✓ 복지관 운영위원회 등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 ✓ 수행기관과 계약을 맺고, 참여자의 선택을 받아 서비스 제공

2) 진행 절차

진행 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V-2> 장애인복지관 개인예산제도 진행 절차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이용자 ↓ 수행기관 (복지관)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전화, 우편 등
		신청자격	관내 등록 장애인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지원 욕구 상담	참여자 수행기관 (복지관)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팀)
		욕구 상담	이용자 욕구 상담
개인예산 계획서 작성	이용자 수행기관 (복지관)	작성방법	개인별 작성(수행기관 지원)
		예산 산정 방식	시장가, 견적가 또는 상한가 적용
		계획서 내용	- 인적사항 - 내가 원하는 삶의 계획(상황, 필요 서비스 등) - 개인별 서비스 및 예산 계획 등
개인예산 승인 및 계약	수행기관 (복지관) ↓↑ 심의위원회	제출기관	수행기관
		승인기관	개인예산 심의위원회
개인예산 지급	수행기관 ↓ 이용자	지급 형태	현금 지급 (서비스 이용금액 지급)
		급여 내용	사회서비스 및 지역 기반 서비스 영역
		용도·용처	5개 영역의 용도에 사용 용처 제한 없음
		제한	- 도박, 술, 담배 등 윤리에 반하는 품목 - 사회활동과 미연계된 의식주 품목
집행	이용자 (수행기관)	지원건별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수행기관에서 이용자 개별 집행사항 모니터링 및 문의 응대)	
정산	수행기관 (복지관) ↓↑ 이용자	정산 지원	수행기관
		정산 확정	수행기관

3) 운영 시 유의할 점

제4장에서 도출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3장 모형 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장애인의 경우 자가에 산다고 하여도 부모의 집에 사는 경우가 많아 ‘사업 신청서 기본정보’ 에서 부모와의 동거 여부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사전·사후 질문지 문항은 개인의 성과만 측정하는 방향으로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쉬운 글 버전 제작이 필요하다. 가족의 건강성과 응집력 등 가족과 관련된 문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완성 설문지를 쉬운 글 버전으로 제작하여 일부 발달장애인에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니터링 방식을 유연화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돈의 사용을 명확히 검토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는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티를 내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바우처가 아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원의 꼬리표를 없애 이용자의 존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개인예산제도 목적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방식은 배제되어야 한다.

넷째, 서비스 제공기관에 개인예산을 선지급한 후 이용자의 참여율이 낮을 경우 다음 달 수강료 등 이용료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비용 지원의 경우에도 출석일이 20일 중 11일 이상이어야 지원이 지속되고, 11일 미만일 경우 자부담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조하여 참여율이 50% 미만일 경우 개인예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2024년 보육사업 안내를 참조하면 출석 일수가 11일 이상일 경우 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출석 일수가 6~10일인 경우 단가의 50%만 지원하고 있다. 또 출석 일수가 1~5일인 경우 25%만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이 질병, 부상, 감염병 유행 시에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석 일수에 따른 지원 비율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고,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석인정 특례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와 같은 정책을 미리 참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즉 사업 참여에 앞서 개인예산 지원 기준을 사전에 참여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개인예산을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여 금액이 남는 경우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해 개인예산액이 남을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은 다시 반납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서 등에 “계획대로 다 집행하지 못하고 금액이 남은 경우 사업 종료일 이후 5일 이내에 반납한다.” 라는 조항 삽입이 필요하다.

2. 지자체 단위 실행 모형

재원 마련의 타당성 등에 따라 개인예산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 주체가 되는 모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수행 체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개인예산제도 수행 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V-3> 지자체 단위 개인예산제도 수행 체계

기관	역할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의 사용처 및 사용량을 자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 및 집행, 선택과 통제권을 갖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운영 기관 -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예산제 사업총괄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 참여자 모집(발굴), 신청접수 협조 • 사업 참여자 선정 • 개인예산 계획 승인 및 계약 • 개인예산 용처 지정 및 계약 • 사업 참여자에게 개인예산 지급 • 사업 참여자 정산 보고 승인 • 사업 운영 관련 제반 행정 사항 처리 • 사업 모니터링, 결과분석, 성과평가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요청 시, 개인예산 계획서 검토 및 급여 승인 심의
지원기관 - 장애인복지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자 모집(발굴), 신청접수 • 사업 참여자 개인예산 계획 작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 개인예산 계획 작성 및 수립 지원 • 지역별 자원(서비스 제공기관, 용처) 목록 작성 • 사업 참여자 정산 지원 • 사업 참여자 개인예산 이용 지원, 모니터링 및 오남용 점검
서비스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 ✓ (1안) 수행기관과 계약을 맺고, 참여자의 선택을 받아 서비스 제공 ✓ (2안) 참여자와 계약에 의해서 서비스 제공

2) 진행 절차

진행 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V-4> 지자체 단위 개인예산제도 진행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이용자 ↓ 운영 기관 및 지원기관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전화, 우편 등
		신청자격	등록 장애인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지원 욕구 상담	참여자 지원기관	지원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구별 2~3개 기관
		욕구 상담	이용자 욕구 상담
개인예산 계획서 작성	이용자 지원기관	작성 방법	개인별 작성(지원기관 지원)
		예산 산정 방식	시장가, 견적가 또는 상한가 적용
		계획서 내용	- 인적 사항 - 내가 원하는 삶의 계획(상황, 필요 서비스 등) - 개인별 서비스 및 예산 계획 등
개인예산 승인 및 계약	지원기관 ↓↑ 운영 기관 (심의위원회)	제출기관	운영기관
		승인기관	담당 공무원 또는 개인예산 심의위원회
개인예산 지급	운영 기관 ↓ 이용자	지급 형태	현금 지급
		급여 내용	사회서비스 및 지역 기반 서비스 영역
		용도·용처	5개 영역의 용도에 사용 용처 제한 없음
		제한	- 도박, 술, 담배 등 윤리에 반하는 품목 - 사회활동과 미연계된 의식주 품목
집행	이용자 (지원기관)	지원건별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지원기관에서 이용자 개별 집행 사항 모니터링 및 문의 응대)	
정산	이용자, 지원기관 ↓↑ 운영 기관	정산 지원	지원기관
		정산 확정	운영 기관

3) 운영 시 유의할 점

지자체 단위 실행 모형을 실행할 경우 유념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담당자가 개인예산 할당을 담당하는 사정 담당관 역할을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민간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한 명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순환보직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에서 한 업무만 계속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순환보직이 원칙일 경우 공무원이 사정 담당관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민간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장애인들이 개인예산의 양을 과도하게 많이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정산 등 과업이 있다 보니 (상당히)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과하게 요구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실제 필요량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개인예산 할당을 담당하는 사정 담당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전달체계로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사정 담당관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량도 많이 올라갔고, 또 사정 및 계획 지원기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예산 할당을 위한 사정 및 지원계획 작성 권한을 가진 민간기관은 공무원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선택하여야 한다. 개인예산 할당을 위한 사정 및 지원계획 작성을 지원하는 기관은 구별로 하나의 기관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3개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 중에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개인예산 할당을 담당하는 사정 담당관 역할을 민간 전달체계에서 담당하더라도 개인예산에 관한 최종 승인 및 계약은 구청 또는 시청의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계획서를 모두 검토할 필요는 없고, ①계획이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잘 반영한 것인지, ②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③계획대로 실행했을 경우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와 같은 3가지를 점검하여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즉 담당 공무원이 전체 개인예산제를 관리하되, 지원 필요량 사정 및 지원계획 작성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다.

다섯째,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의 경우 심의위원회(구 또는 서울시에 마련)를 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자원할당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와 더불어 위험도 평가도 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의견을 전달한다.

여섯째, 개인예산제 참여 자격에 소득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예산제는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전액 정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보장정책이 아니고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여도 장애로 인해 필요한 사항이라면 개인예산제도에 의한 지원 항목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지원 항목 선정 및 금액 설정 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보장되어야 한다. 개별유연화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예산을 받은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명 유지 및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급부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조금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구입까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예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전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있으나 택시를 타는 것은 사치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맞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품은 ‘사회적 필요품(social necessities)’의 개념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설아, 정종화 (2022). 신체장애인의 개인예산제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재활복지, 26(1), 67-97.
- 김경미 (2020).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사람중심지원에 기반한 자기주도 개인예산제에 대한 연구 - 미국 미네소타 주의 경험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 48, 93-120.
- 김동기, 이한나, 어유경 (2023).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 운영 모형에 대한 탐색. 장애인복지연구, 14(1), 295-330.
- 김동홍, 정종화 (2021). 발달장애인의 개인예산제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1), 139-172.
- 김용득, 이동석, 김용진, 박광욱 (2017). 개인예산제도입 타당성 연구. 서울특별시,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 남용현 (2014). 장애인 복지정책에서의 이용자 참여 강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732-742.
- 송승연, 김효정, 장선미 (2022). 정신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에 관한 호주 국가장애보험(Ndis)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6, 263-297.
- 원소연 (2010).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독일의 개인예산제도와 한국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267-289.
- 유동철 (2012). 영국 장애인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비판사회정책, 34, 129-162.
- 이동석 (2015).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비교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8, 49-74.
- 이동석, 김용득 (2013). 영국 서비스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의 쟁점 및 한국의 도입 가능성. 한국장애인복지학, 23, 47-66.
- 이승기, 이성규 (2014).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학, 26, 235-249.
- 이한나 (2022). 호주 국가장애보험의 현황과 이슈. 국제사회보장리뷰, 20, 59-72.
- 이한나, 김동기, 김용진, 전지혜 (2020). 한국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49, 83-118.
- 이한나, 김성희, 오욱찬, 황주희, 김동기, 이동석, 신은경, 조윤화, 엄다원, 조휘래 (2024).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선미 (2022). 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로서 호주 국가장애보험법의 국내적 함의. 사회복지법제연구, 13(1), 41-73.
- 정성희, 문영임 (2023). 개인예산제 적용 방안에 관한 고찰 연구: 영국의 개인예산제도 (Personal Budgets)를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연구, 4(1), 387-400.
- 조한진 (2011). “장애등급의 문제를 넘어서: 장애의 정의·분류·측정.” 재활복지, 15(4): 1-26.

- 한국장애인재단 (2024).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한국장애인재단.
- 허준기, 김정석, 전보영, 이준우 (2022).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3(2), 39-73.
- Barnes C, Oliver M, and Barton L (eds). (2002). *Disability Studies Today*. Cambridge: Polity Press.
- Barnes C. and Mercer G. (2003). *Disability*. Cambridge: Polity Press.
- Bernell, S. L. (2003). "Theoretical and applied issues in defining disability in labor market research."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4(1): 36-45.
- Carr, S. (2011). Personal budgets and international contexts: Lessons from home and abroad. *Journal of Care Services Management*, 5(1), 9-22.
- Gabel S. and Peters S. (2004). Presage of a paradigm shift? Beyond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toward resistance theories of disability. *Disability & Society* 19: 585-600.
- Gardner, A. (2011). *Personalisation in social work*. Exeter; Learning Matters Ltd.
- Glasby, J. & Littlechild, R. (2009). *Direct Payments and Personal Budgets - putting personalization into practice*. Bristol: Policy Press.
- Hughes B. and Paterson K. (1997).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and the disappearing body: towards a sociology of impairment. *Disability & Society* 12: 325-40.
- Palmer, M. and Harley, D. (2011). "Models and measurement in disability: an international review." *Health Policy and Planning*, 1-8.
- Pfieffer D. (2000). The devils are in the details: the ICDH2 and the disability movement. *Disability & Society* 15: 1079-82.
- Pinder R. (1997). A reply to Tom Shakespeare and Nicholas Watson. *Disability & Society* 12: 301-5.
- Reindal SM. (2008). A social relational model of disability: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pecial needs education. *European Journal of Special Needs Education* 23: 135-46.
- Shakespeare T. and Watson N. (1997). Defending the social model. *Disability & Society* 12: 293-300.
- Thomas C. (2002). Disability theory: key ideas, issues and thinkers. In: Barnes C, Oliver M, Barton L (eds). *Disability Studies Today*. Cambridge: Polity Press.
- Ungerson, C. (2004). "Whose empowerment and independence? A cross-national perspective on cash for care schemes" . *Ageing and Society*, 24: 189-212.

부록 1. 지원자 면담 조사지

1차 지원자 면담 조사지

1. 지원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이나 고민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지원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변화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3. 지원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4. 지원과정에서의 아쉬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2차 지원자 면담 조사지

1.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의 성과 및 한계
 - 1) 자신이 지원했던 참여자가 원하여 정했던 목표는 무엇이었고(변경 시 변경 내용 포함),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2) 이용자가 원하는 삶과 1, 2년 내 시도하고 싶은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1), 2)를 비롯한 긍정적인 성과와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는 개인예산계획서를 토대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원자로서 성과 및 한계는 무엇입니까?

부록 2. 이용자 면담 조사지

1차 이용자 면담 조사지

1. 복지관 개인예산제도 사업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2. 복지관 개인예산제도 경험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3. 개인예산제도를 활용해 봄에 따라, 개인예산제도가 타 지원 제도에 비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4. 현재 개인예산제도를 수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고,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1) 개인예산제도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어려웠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2) 개인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려웠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3) 개인예산 사용 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웠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혹시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모두 말씀하셔도 됩니다.

2차 이용자 면담 조사지

1. 복지관 개인예산제도 사업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여 정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통해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까?
2. 개인예산제도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생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는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3. 개인예산제도 사업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4. 혹시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모두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록 3. 관련 서식

- [서식1] 개인예산제 사업 신청서
- [서식2] 개인예산계획서
- [서식3-1] 개인예산제 사업 선정결과 안내(선정)
- [서식3-2] 개인예산제 사업 선정결과 안내(미선정)
- [서식4] 개인예산계획 심의안내서
- [서식5-1] 개인예산계획 심의 이의신청서
- [서식5-2] 개인예산계획 심의 이의신청 결정서
- [서식6] 개인예산제 월별 예산 정산 확인서
- [서식7] 개인예산계획 변경신청서
- [서식8] 개인예산제 사업 참여 중지 신청서

[서식1] 개인예산제 사업 신청서

하상장애인복지관 개인예산제 사업 신청서

■신청자 인적 정보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연락처	(비상연락망 :)				
장애유형		장애정도	<input type="checkbox"/> 심한 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하지 않은 장애		
중도장애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발생시기 <input type="checkbox"/> 20세 이전, <input type="checkbox"/> 20대, <input type="checkbox"/> 30대, <input type="checkbox"/> 40대, <input type="checkbox"/> 50대, <input type="checkbox"/> 60대)				
경제 상황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 <input type="checkbox"/> 차상위(조건부수급), <input type="checkbox"/> 일반				
활동지원급여 수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미이용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활용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경제 상황, 활동지원급여정보 등 ● 수집목적 : 개인예산제 사업 참여자 선정, 참여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조사 ● 보유기간 : 개인예산제 사업 운영 및 연구조사에 필요한 기간(5년) <p>※ 단, 개인예산제 정책을 위한 추가 연구조사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 보유 기간 종료 후에도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집 및 활용기관: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 style="text-align: center;">위 기재 사실에 허위가 있는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자와의 관계</p>					

■개인예산 이용계획

※필요시 칸을 추가하여 기재

나의 상황	나의 재능, 강점, 기술				
	장애로 인해 겪는 사회적 제한, 삶에서의 어려움				
내가 원하는 변화와 지원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	※희망, 꿈, 바라는 것, 관심사 등			
	시도하고 싶은 것	※1~2년 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	서비스 이름	단가 (원)	주기 (일/주/월 0회)	총비용 (원)
	총비용			원	

<파트 1> 기본정보

※신청인 또는 조력인이 작성

1. 인적 사항

성 명		성 별	남성 / 여성	생년월일	
연 락 처		비상연락처		이 메 일	
주 소					
장애유형/정도	장애명 : <input type="checkbox"/> 중복장애(장애명:)		보장구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중도장애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발생시기 <input type="checkbox"/> 20세 이전, <input type="checkbox"/> 20대, <input type="checkbox"/> 30대, <input type="checkbox"/> 40대, <input type="checkbox"/> 50대, <input type="checkbox"/> 60대)				
경제상황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차상위(조건부수급) <input type="checkbox"/> 일반				
소득보장 현황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취업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력 사항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대학 이상 <input type="checkbox"/> 다니지 않았음				
거주 현황	주택소유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주택 유형	<input type="checkbox"/> 아파트(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독주택(다가구 등) <input type="checkbox"/> 거주시설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혼상태	<input type="checkbox"/> 미혼 <input type="checkbox"/> 기혼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조력인 (동행 가족 및 지원인)	성명	본인과의 관계		연락처	

2. 신체적·감각적·인지적 능력

※해당하는 란에 √표 해주십시오.

항목	지원 불필요	약간의 지원 필요	부분적 지원 필요	전적 지원 필요
옷 갈아입기	①	②	③	④
움겨 앉기	①	②	③	④
계단 오르내리기	①	②	③	④
실내 이동하기	①	②	③	④
실외 이동하기	①	②	③	④
책 읽기	①	②	③	④
의사소통하기	①	②	③	④
위험 인식 및 대처	①	②	③	④

- 지원 불필요: 아무런 도움 없이 자신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
- 약간의 지원 필요: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나 보조기기가 필요하거나 시작 또는 끝부분에서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부분적 지원 필요: 활동을 하는 동안 신체적으로 50% 이상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경우
- 전적 지원 필요: 지속적으로 신체적 지원을 80% 이상 지원해야 하는 경우

3. 가족관계

관계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동거여부	연락처	기타

4. 나를 지원하는 사람

나를 지원하는 사람 중 친하고,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 및 친구	
	이웃/ 지역사회	
	직장/학교	
	유급 지원자	

※ 성명, 본인과의 관계, 나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 본인(귀하)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현재 지원받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들은 내가 좋아하고,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으로 나에게 어떠한 도움(지원)이 되는 사람, 정서적으로 조금 더 친밀한 사람을 떠올리면 됩니다. 가족 및 친구, 이웃과 지역사회, 직장과 학교, 당신을 돕고 돌보는 유급 또는 무급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지원하는 사람 외에도 당신이 지원하는 사람도 적어주세요(나의 자녀, 부모 등)

<파트 2> 나에 대한 설명

1. 나의 상황

<p>재능, 강점, 업적, 기술, 열정, 지식, 기여도</p>	
<p>장애로 인한 사회적 제한, 전반적인 삶에서의 어려움</p>	

2. 내가 바라는 변화와 지원

<p>전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 희망, 꿈, 바라는바, 관심사, 선호도</p>	
<p>본인이 원하는 변화와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p>	
<p>개인이 시도하고 싶은 것 (1 ~ 2년 내)</p>	

<파트 3> 내가 원하는 삶의 계획

1. 나의 주요 욕구 및 관심

※ 예시 항목에 국한하지 마십시오.

다음 중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을 모두 작성하고, 기록된 영역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빈칸에 숫자로 기록해 주세요.	
구분	예시
[] 일상생활	타 지원영역에서 승인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 및 인력 지원 인력지원을 대체하는 물품 지원
[] 사회생활	특수한 목적(자아실현, 취창업 연계 등)이 있는 사회 활동 승인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물품 지원
[] 경제활동	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교육
[] 건강 및 안전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 주거환경 개선	안전을 위한 주택 개조 장애 맞춤형 주택 개조
[] 기타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 :		
1. 목표		
2.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지원/서비스/자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3.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급여승인기준 ※지원 코디네이터 작성		
기존 제도와 중복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사유>
장애와의 연관성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사유>
개인의 특수한 욕구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사유>
변화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사유>
지원의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사유>
지원 코디네이터 의견		
예산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 :		
1. 목표		
2.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지원/서비스/자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3.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급여승인기준 ※지원 코디네이터 작성		
기존 제도와 중복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사유>
장애와의 연관성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사유>
개인의 특수한 욕구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사유>
변화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사유>
지원의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사유>
지원 코디네이터 의견		
예산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 :		
1. 목표		
2.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지원/서비스/자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3.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급여승인기준 ※지원 코디네이터 작성		
기존 제도와 중복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사유>
장애와의 연관성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사유>
개인의 특수한 욕구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사유>
변화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사유>
지원의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사유>
지원 코디네이터 의견		
예산		

<파트 4> 서비스 및 지원

1. 개인별 서비스 및 예산 계획

(단위 : 원)

영역	서비스명	시작일 & 종료일	단가	주기 (일/주/월)	연간비용	비고	당사자 우선순위
일상생활 지원							
사회생활 지원							
경제활동 지원							
건강 및 안전 자원							
주거환경 개선							
기타							
총 계							원

2. 개인별 서비스 현황

현재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에 대해 모두 기록해 주세요.

구분	급여세부내용			이용현황		
	활동지원 구간	급여 월 한도액	본인부담 금	총 활동 시간(월)	급여 비용	제공기관
활동지원 (국가형)					월 원	
활동지원 (서울시 추가급여)					월 원	
활동지원 비수급자	활동지원 수급 해당 없음()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 담당자	비고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장애 유형/정도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예산제 사업 연구 개인예산제 사업 안내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개인예산제 연구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장애 유형/정도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예산제 사업 연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예산제 사업 연구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개인 예산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률상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동의한 이용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인예산계획 수립 동의서			
위 개인예산계획은 본인 ()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당사자가 요청할 시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예산계획을 확인하였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인/서명)	지원 코디네이터	(인/서명)
계획날짜		지원 코디네이터 연락처	
서비스 시작일			
서비스 종료일			

□ [서식3-1] 개인예산제 사업 선정결과 안내(선정)

<개인예산제 사업 선정결과 안내>

귀하의 「개인예산제 사업」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자 명		생년월일	
선정결과	선정	지원기관	

1. 개인예산계획 작성 안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지원 코디네이터가 전화로 연락할 예정입니다.
개인예산계획 작성 시 해당 코디네이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후 제출된 개인예산계획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사용 가능하며, 심의된 개인예산
사용 및 정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년 월 일

하상장애인복지관장 직인

문의 ☎ 02-451-4230

□ [서식3-2] 개인예산제 사업 선정결과 안내(미선정)

<개인예산제 사업 선정결과 안내>

귀하의 「개인예산제 사업」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자 명		생년월일	
선정결과	미선정	지원기관	

1. 개인예산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정자 중 중도 포기 등에 따라 추후 참여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선정 시 전화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년 월 일

하상장애인복지관장 직인

문의 ☎ 02-451-4230

□ [서식4] 개인예산계획 심의안내서

<개인예산계획 심의안내서>

성명			연락처			
주소						
계획 수립일						
서비스 시작일			서비스 종료일			
신청 서비스 내역						
서비스 명칭	횟수 (회/일, 주, 월)	단가 (원)	총 금액 (원)	심의 결과		
				승인	거절	조정
총 신청 금액(원)						
총 승인 금액(원)						
조정 사유						
<p>위와 같이 개인예산계획을 검토 및 심의하였음을 안내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하상장애인복지관장</p> <div style="float: right; 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top: 10px;">직인</div>						

□ [서식5-1] 개인예산계획 심의 이의신청서

〈개인예산계획 심의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 락 처			
심의결과 통지일				
심의 내용	서비스 명칭		총 금액 (원)	심의 결과 승인 거절 조정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p>위와 같이 개인예산계획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하상장애인복지관장 귀하</p>				

□ [서식5-2] 개인예산계획 심의 이의신청 결정서

<개인예산계획 심의 이의신청 결정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 락 처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결정 내용				
결정 사유				
<p>위와 같이 개인예산계획 심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을 안내합니다.</p> <p>년 월 일</p> <p>하상장애인복지관장</p>				
				직인

□ [서식6] 개인예산제 월별 예산 정산 확인서

〈월별 예산 정산 확인서〉

지원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연락처		
참여자 명		참여자 연락처		
()월 개인예산 사용 내역				
구분	신청 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	사용 금액	지원 코디네이터 확인
				월별 사용 계획에 따른 점검사항 기재
총 사용 금액				
누적 사용 금액				
예산 잔액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참여자 ()의 ()월 개인예산 사용에 대해 점검한 내용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 코디네이터 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하상장애인복지관장 귀하</p>				

□ [서식7] 개인예산계획 변경신청서

<개인예산계획 변경신청서>

성 명				연 락 처			
계획 수립일							
서비스 시작일				서비스 종료일			
개인예산계획 변경 신청 내역							
구분	신청 서비스	단가(원)	횟수 (일/주/월)	총 금액(원)	증감(원)	변경사유	
1	최초	바리스타교육	300,000	월 4회, 3개월	900,000	▼100,000	횟수 변경
	변경	바리스타교육	400,000	월 6회, 2개월	800,000		
2	최초	-	-	-	-	▲100,000	신규 (교육과정에서 필요)
	변경	바리스타학원교재	100,000	1회	100,000		
3	최초						
	변경						
4	최초						
	변경						
5	최초						
	변경						
6	최초						
	변경						
최초 승인 금액(원)							
변경 신청 금액(원)							
위와 같이 개인예산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상장애인복지관장 귀하							

